

하일로우 넥센



CONTENTS

나눔 그리고 어울림

가을 걷이하러 왔습니다!
1사촌 '노구소 마을'에 가다



04

N이슈

창녕공장 스페셜 / 넥센 타이어 노사화합의 축제
양산 물금 대탐험 / 책 권하는 사람들



08

N박사 상담소

애지중지 귀한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어쩌죠?
우리 아이, 책과 친해지려면?



24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넓은 세계를 향해 오늘도 달린다
글로벌 수퍼맨, 해외OET팀



28

Tire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넥센타이어의 신제품



32

넥센프렌즈

띠링띠링 - 손님 오늘은 타이어 점검일입니다
타이어테크 진해점



34

News



38

농반진반

회식문화, 이대로 좋습니까?



44



HELLO NEXEN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2년 가을호 통권 49호 | 발행인 이현봉 | 발행일 2012년 11월 1일 | 발행처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넥센타이어(주) 경영관리팀 | 담당 박수현 (055-370-
5283) | 기획 및 디자인(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 디자인 어진아, 장진숙,
김지선, 장윤희 | 사진 사진과책 (02-587-1102) |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
3377) | 인쇄 삼조인쇄주식회사



나눔 그리고 어울림



서울사무소 1사1촌 자매결연
강원도 횡성 '노구소마을'에 가다

가을걷이하러 왔습니다!





아직은 햇볕이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강원도 횡성을 찾았다. 총무2팀의 정문혁 팀장, 김민영 사우, 김희진 사우, 아태팀의 이용원 사우, 미주팀의 김현정 사우, 정우석 사우, OE기술팀의 하미선 사우까지 총출동해 이곳에 온 건 지난해부터 시작된 노구소마을과의 자매결연 덕분이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즐거운 웃음이 넘치던 하루 동안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단단히 영글었다.

글 이경수 사진 이맹호

엣그제가 모내기 같은데 벌써 가을이네요.

토요일 아침 9시

반가운 얼굴들이 노구소마을회관에 오랜만에 모여 앉았다.

지난 5월 모내기 이후 3개월만인

노구소마을과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의 재회.

유난히 무덥던 지난 여름을 떠올리며

안부를 묻는 정문혁 팀장의 말에

이장님이 더위 탓에 작황이 나쁘다는 걱정을 풀어놓는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바쁘는데,

넥센타이어의 사우들이 와줘서

한시름 놓았다는 환영사도 빼놓지 않는다.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밭일하며 쓰시라고 챙겨온 목장갑과 팔 토시를 보고는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 아이 같은 미소가 걸렸다.





자, 그럼 일 시작할까요?

새벽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
마음이 급한 건 사우들도 마찬가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할 일을 묻는 얼굴에 각오들이 대단하다.
마을의 특산물인 파프리카와 복숭아, 멜론, 토마토,
이제 막 첫 수확을 기다리는
포도와 푸릇한 파리고추까지
다양한 작물들이 여름 별 아래
넥센 사우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때마침 빗줄기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해가 반짝 빛나자
하늘도 우리를 돕는다며
들로 나가는 발걸음들이 모두도 당당하다.

복숭아가 제일 좋아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녀회장님댁 복숭아 수확하기.
아직 질퍽한 산비탈을 힘겹게 오르자
나뭇가지마다 탐스럽고 예쁜 복숭아가 잔뜩 매달려 있다.
발을 오가기 쉽도록 비탈에 깔린 모노레일이 신기해
사우들이 서로 타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 발에 뱀 있다, 그러다 물려도 내는 모른다!”
신이 나서 복숭아발을 종횡무진하는 여사우의 모습을 보고
장난으로 겁을 주는 주민 어른신의 놀림에도
까르르- 터진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노구소마을로 놀러 오세요!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에 위치한

자연 쉼터 노구소마을은

2011년 6월부터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와 인연을 맺어왔다.

최고 품질의 복숭아와 파프리카, 청정쌀은 물론,

김장철이면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절임배추도 노구소마을의 특산물이다.

추진력 뛰어난 이장님,

인심 넉넉한 부녀회장님과 친절한 주민들 덕분에

여름이면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하천에 관광객이 넘쳐난다고.

“10월 추수 때도 또 올 거지?”

“그 전에 어르신들 모시고 서울 한 번 오십시오.

같이 야구 경기 보셔야죠.”

고된 하루를 마치고

아쉬운 인사 대신 오가는 초대의 말 속에

어느새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 느껴진다. 

〈노구소마을 특산물 구입 방법〉

노구소마을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복숭아와 파프리카, 청정쌀, 고추, 절임배추 등 다양하다. 180여 명 마을 주민들이 함께 조합을 꾸려 농산물을 생산한다. 현재 온라인으로는 특산물을 판매하지 않으며,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구입 및 문의가 가능하다.

노구소마을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2리 노구소마을

홈페이지 www.noguhm.kr

방문 및 특산물 구입 문의

033-342-7443/ 011-9058-7443(이장 전찬수)







자
장
터
장



정리 박수현
경영관리팀

창녕, 넥센타이어의 새 길을 열다

드디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이 준공되었다.
지난 10월 12일 준공식을 연 창녕공장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숨 가뻔했던 지난날들과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자.



2009

● 2009.09.28 MOU 체결

2010

● 2010.06.24 창녕공장 기공식

● 2010.11.25 안전기원제

2011
● 2011.09.07 수전식 통전식





● 2011. 10. 19 상량식 & 보일러 점화식

● 2012. 03. 06 창녕공장 가동식

● 2012. 03. 06 1호 타이어 생산기념식

● 2012. 04. 09 첫 출하 기념식

2012



Changnyeong Story



글 박수현
경영관리팀
사진 이맹호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

2012년 10월 12일 (금) 오후 4시 NEXN 넥센타이어



글로벌 타이어 회사로 힘차게 뎡을 올리다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

지난 10월 12일 넥센타이어는 경남 창녕에서 제2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임채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충식 창녕군수 등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을 비롯한 넥센그룹 임직원 및 국내외 바이어, 유관 기관, 주민을 포함 약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창녕공장 뎡을 올리다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일원에 위치한 창녕공장은 총 50만㎡(15만 평) 규모로 지난 2010년 6월 기공식을 가진 이후 2년 만에 준공식을 개최했다.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이미 지난 3월부터 타이어 생산에 돌입했으며 이번 준공식은 공장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공장 가동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세계 최고 설비와 첨단 기술을 골고루 갖춘 창녕공장에는 현재 700여 명의 임직원이 투입되어 2012년 600만 개의 타이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넥센타이어의 창녕공장 개설은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 투자를 지속해 온 경쟁업체들과 달리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두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

이번 준공식은 넥센타이어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최단기간 성공적인 공장 건설을 축하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축제의 자리였다. 식전 행사에서는 전자현악팀과 대북공연팀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돋웠으며, 공식 행사에서는 창녕공장 준공에 대한 경과보고를 비롯해 준공에 공로가 인정되는 국내외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최첨단 자동화 공장인 창녕공장은 넥센타이어 초고속 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높은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타이어를 생산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임채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충식 창녕군수 등 관계 유력 인사들 또한 창녕공장의 발전을 위한 축사를 더했다. 특히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창녕공장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자동차 공장으로 가동된 점과 약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감사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준공식은 최단기간
성공적인 공장 건설을 축하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축제의 자리로 꾸며졌다.

글로벌 10위권 타이어사로의 도약

한편 넥센타이어는 양산 본사공장, 중국공장, 창녕공장 등 3곳에서 연간 3,0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중이며 투자가 완료되는 2018년에는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연간 6,000만 개의 제품 생산으로 글로벌 10위권 대 타이어사로 발돋움 할 전망이다. 창녕공장의 경우 하루 생산량 6만 개, 연간 2,100만 개의 생산을 계획 중이다.

특히 넥센타이어는 지난 2000년 'NEXEN'으로 사명 변경 당시 2,064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1조 4,299억 원을 기록하며 세계 타이어업계 최고 수준의 매출성장률 및 초고속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은 “창녕공장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 바이어들의 주문에 맞춰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생산기지로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생산규모의 확충과 함께 품질 경쟁력,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N



정리 · 사진
박수현
경영관리팀

준공 기념 좌담회

2009년 9월 8일 MOU 체결부터 2010년 6월 24일 기공식, 2012년 3월 가동 시작, 그리고 2012년 10월 12일 준공식까지. 힘차게 달려왔다. 앞으로 넥센타이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창녕공장에서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보다 친환경적인 공장을 만들기 위해 진두지휘하는 두 사람, 이응용 부사장과 오세인 상무를 만나보았다.

이응용 부사장



창녕공장 건설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헬로우넥센(이하 '넥') : 창녕공장은 어떤 공장인가요?

이응용 부사장(이하 '이') : 넥센타이어는 양산에 본사 공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 청도에도 2006년 법인 설립 후 2008년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 공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저연비 타이어, 친환경 타이어가 이슈화되고 있었고,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TOP 10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으로 창녕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세인 상무(이하 '오') : 처음 저희가 고민한 것은 '창녕공장의 생산설비나 생산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나 시장이 필요로 하는 타이어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첨단 설비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만 다른 공장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OE를 문제없이 수주할 수 있고, 완벽한 품질을 자랑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과 환경까지 고려한 공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전 자동차 공장인 창녕공장이 탄생한 것이죠.

넥 : 그럼 창녕공장의 최고 가치가 품질, 안전, 환경 이렇게 세 가지라는 말씀인가요?

오 : 네,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현재 유럽의 라벨링 제도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비에 관련된 회전저항을 비롯해, 빗길 주행능력, 주행 시 타이어 소음 발생 여부 등등은 세 가지 가치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안전하고, 품질까지 좋은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공장, 그것이 바로 창녕공장입니다.

넥 : 최첨단 자동화 공장이라. 부담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 이장이나 땅 문제부터 촉박한 건설시간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창녕군청, 경남도청 등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TFT 팀을 만들어 마치 자기 일인 양 발 벗고 나서 주셨죠. 물론 우리 넥센타이어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했고요.

넥 :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 : 가장 큰 문제는 최첨단 공장을 만들라는 미션을 받긴 받았는데,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증된 설비나 자료만 가지고는 최첨단 자동화



창녕공장은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TOP 10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입니다.



창녕공장은 많은 이들의 땀과 정성,
 훈이 들어간 세계 유일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공장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물류 자동화 부분은 전례가 없어 더욱 새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시뮬레이션을 펼칠 수밖에 없었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자고 했지요.

오 : 사실 처음 창녕공장 건설 계획을 짤 때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보니 보통 공장을 건설하면 토목공사에만 2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민원이나 주변 환경의 문제로 발파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막막했죠. 이때 부사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섞어서 진행하자고요.

이 : 하나를 마무리하고 다음 것을 하면 도저히 시간을 맞추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목공사와 건물 준공을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이 방법이 잘 맞아떨어져 2년 만에 본격 가동을 하게 됐죠.

넥 : 다른 공장과 비교할 때 창녕공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공장들은 성형에서 가류, 완제품 자동창고까지만 자동화 공정입니다. 성형공정 이전의 공정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동이지요. 창녕은 설비도 자동화지만 정보 시스템도 자동화입니다. 모든 자료가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단순한 물류 자동화에서 벗어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것까지 자동화했습니다. 창녕공장의 자동화 공정이 우수한 점은 생산한 반제품들이 어떤 재료로 어떤 기기에서 몇 시에 누가 만들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생산 이력이 5분 내로 확인 가능하지요. 이것을 저화는 품질 추적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제품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창녕공장은 모두가 품질 추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RFID와 바코드를 이용한 이 시스템은 선입선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생산된 것부터 사용하니 품질이 좋아지지요. 또 타이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처가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 : 창녕공장이 최첨단 공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산 시스템이 따라주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반제품, 완제품의 생산실적, 품질정보 및 이송관련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수집합니다. 무인 반송 설비(LGV, EMS)는 AP(Access Point)를 통해 전산시스템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위치를 제어하여 제품을 이송함으로써 자동화 공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넥 : 창녕공장은 국내 투자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 국내 근로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품질경쟁력과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최근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상태라는 점과 최첨단 자동화 공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크게 평가되었습니다.



오세인 상무


넥 : 창녕공장 준공에 대한 두 분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창녕 주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2년이라는 공사기간 중에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설치할 때 문제가 된 설비가 없었다는 점도 감사합니다. 넥센타이어의 창녕공장이 미래 성장 동력답게 운이 좋은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 저는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의 힘이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을 보면 층층이 기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배관, 전선, 통신선로가 지나가고 그 위에 다시 공조덕트, 처마가 올라가죠. 이 복잡한 곳을 모든 설비들은 다 피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공장이야말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훈이 들어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유일의 창조물. 아름답죠.

넥 : 이 자리를 통해 서로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오 : 부사장님께서 제 의견을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절 믿어주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의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 : 저보단 오세인 상무가 고생이 많았지요. 앞으로 2, 3차 증설이 남았는데 더욱 힘내주세요. 저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글 박수현
경영관리팀
사진 이지모
공정관리파트,
박성훈

유쾌! 상쾌! 통쾌! 넥센은 하나다!

2012 넥센타이어 노사화합의 축제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친목을 다지기에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힘껏 부딪히고 어울리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끈끈한 정이 쌓이기 때문이다. 목청이 터져라 응원하면 그에 부응코자 능력을 십분 발휘해 경기에 임하는 사랑스러운 팀원들. 2년 만에 찾아온 열정 2013! 2012 넥센타이어 노사화합의 축제는 올해도 참으로 뜨거웠다.

창녕까지 헤쳐~모여!

10월 21일 양산종합운동장에서 2012 넥센타이어 노사화합의 축제가 개최되었다. 넥센타이어의 임직원 총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행사는 양산 본사의 임직원만이 아니라 창녕공장의 임직원들까지 모두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우들은 그간 갖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의지를 불태웠다. 대표이사의 격려사와 노조위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지며 노사화합결의, 노사상생선언과 함께 드디어 축제의 서막이 올랐다.

이번 축제의 경기 종목은 협력공튀기기, 지네발릴레이, 커플피구, 한다발뛰어, 세발자전거, 특급열차파도타기, 자녀50m달리기, 600m계주의 총 여덟 종목으로 구성되



1 개막 선서를 하는 선수들

2 협력공튀기기 게임

었다. 이번 종목들은 팀워크를 중시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넥센타이어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 더욱 눈에 띄었다.

오전에 진행된 경기는 협력공튀기기와 지네발릴레이, 커플피구. 스타트는 여럿이 줄을 잡고 하나의 공을 원반 위에서 튕겨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한 팀이 승리하는 협력공튀기기가 끝났다. 지난 축제에서 진행했던 종목이라 경험자들의 조언도 다양했는데, 특히 이전에 400회 이상의 최고기록을 수립했던 당시 우승자들의 조언은 플레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줄을 짧게 잡는 것이 좋다, 공을 낮게 튕기는 것이 좋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등등 다양한 충고 속에서 경기가 이어졌으나 아쉽게도 기록갱신은 없었다. 그러나 1위를 한 팀도 50회를 넘기지 못하는 고투 속에 나름 치열한 박빙의 승부를 펼쳐 보는 이들에게 긴장감을 주었다.

이어 지네발릴레이와 커플피구가 경기장 한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지네발릴레이는 6개의 구멍이 뚫린 스티로폼에 팀원들이 한쪽 발을 넣고 달려 결승점을 돌아오는 릴레이 경기로 여섯 명이 한 마음이 되어야 가능한 경기다. 넘어지는 선수도, 뒤처지는 선수도 많았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모두가 결승점을 통과해 큰 박수를 받았다. 커플피구 역시 혼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여성 팀원을 보호해야하는 합동 경기. 이번 경기에서는 여



성 팀원이 한 발로만 버텨야 했기에 더욱 팀워크가 중요했다. 거센 공격 속에서 애정이 샘솟는 듯한 묘한 분위기는 선수들에게도, 보는 이들에게도 더 큰 재미를 선사했다.

엄마 아빠, 나도 벵센인이예요!

쌀쌀한 아침과 저녁이 무색하게 정오의 가을볕이 매서웠다. 식사 겸 휴식 시간, 더욱 꿀맛 같은 점심식사를 위해 임원들과 노조 간부들이 친선 축구 경기 선수로 운동장에 나섰다. 프로 선수 못지않은 열정으로 운동장을 누비는 모습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양산과 창녕의 대표 선수들이 보다 화려한 축구 경기를 선보이며 수준급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열정 2013’이라는 슬로건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양산종합운동장. 오후에도 열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 시작은 창녕공장 직원들의 힘찬 응원열전. 벵센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은 응원단장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이어지는 응원

은 재미난 볼거리를 제공했다.

잠시 후 진행된 오후 경기는 한다발 묶어, 열사람이 하나의 허리띠에 묶여 함께 결승점을 돌아오는 경기로 오전에 진행된 지네발릴레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경기다. 하나둘, 하나둘, 사우들이 구령에 맞춰 달려보지만 우르르 넘어지기가 일쑤. 그러나 선수들은 벵센인 특유의 끈기를 살려 포기하지 않고 모두 결승선을 통과했다.

동시에 경기장 한편에서는 자녀들의 세발자전거 경기가 진행되었다. 노란색 세발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밟는 자녀들의 모습에 사우들의 얼굴에 절로 흐뭇한 아빠미소가 그려졌다.

특급열차파도타기와 자녀50m달리기도 진행되었다. 특급열차파도타기는 물을 굴리는 선수들과 물을 뛰어넘는 선수들의 호흡이 중요한 경기로 이름처럼 파도를 타는 듯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한편 자녀50m달리기는 벵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을 방불케 하는 어린이들의 전력질주로 사뭇 응원석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1 지네발릴레이 게임

2 사랑의 커물피구

3 특급열차 파도타기

4 힘찬 응원전





5 6



7



이번 축제 경기 종목들은
팀워크와 화합을 중시하는 넥센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더욱 눈길을 끌었다.



8



5 한다발뛰어

6 초대가수 노브레인

7 자랑스러운 우승자들

8 내가 바로 넥센의
꽃거지야!


노사 모두가

넥센의 N스타!

승부의 끝은 축제의 꽃 제주. 앞서거나 뒤서거나 점전이 이어진 가운데 뽐뽐 소리를 내며 선수들이 트랙을 질주했다.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누구랄 것도 없이 손에 땀을 쥐었던 짜릿한 명승부의 시간이었다.

피날레를 장식한 넥센스타N은 사수들의 장기자랑으로 노사를 한마음으로 이끄는 데 일조했다. 오늘을 위해 각 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밴드, 춤, 뮤지컬, 사물놀이, 연극 등 다양한 볼거리는 넥센인들의 배꼽을 잡게 하기도, 눈물을 짓게 하기도 했다.

특히 2012년 현재 최고 이슈인 '강남 스타일'은 이번 넥센스타N에서도 어김없이 전 사원을 말춤의 세계로 인도했다. 감동적인 프로포즈로 넥센인들 앞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사랑스러운 커플도 있었다. 특히 창녕의 한 직원은 체육대회 당일 결혼식을 치르고 신부와 함께 체육대회에 참가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더불어 인기 연예인 김혜연과 노브레인이 초청가수로 참석, 특유의 무대매너로 현장을 장악하며 양산종합운동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이끌었다. 이번 대회는 PCR파트 3팀이 종합우승, 공무팀 5팀이 지난 축제에 이어 넥센스타N 우승을 차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온종일 함께 뛰고 땀 흘리며 함께한 사수들은 승자와 패자 모두 떠나할 것 없이 하루의 마지막을 즐기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뛰어난 실력과 건강한 체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2012 넥센타이어 노사화합의 축제. 노사의 화합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던 축제의 기억은 앞으로도 함께 2013년을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넥센타이어의 유쾌! 상쾌! 통쾌했던 이 하루가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기원한다. 



넥센의 둥지 양산 물금 대탐험!





넥센타이어가 위치한 양산은
보물 용화사부터 대한민국을 중주하는
자전거 도로까지,
알면 알수록 보고 즐길 것이
많은 고장이다.



양산의 숨은 풍경 찾기

넥센타이어는 양산에 자리잡은 지방 기업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일하고 생활하는 양산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출퇴근하기 바빠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삶의 터전인 이곳의 풍경을 그저 스쳐 지나기만 한 건 아닌지. 그래서 공정관리파트의 김용훈 사수가 나섰다. 아름다운 우리 양산, 조금 더 알고 사랑하자고. 별 좋은 가을날 산책하기 좋은 곳들만 엄선했으니 여유로운 하루, 동료들과 함께 양산 구경에 나서보면 어떨까.



○ 사연 많은 보물이 계신 곳 용화사

물금파출소 근처의 좁고 고불고불한 산길을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자그마한 사찰. 1471년 통도사의 승려 성옥(性玉)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요사채, 산신각, 대웅전으로 이루어진 작은 절이지만 보물 491호인 석조여래좌상이 모셔져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다. 이 석불은 1947년 낙동강에 떠내려온 것을 건진 것으로, 이날을 기려 매년 2월 28일에 용왕제를 지낸다. 철도가 들어선 후 인가가 사라지고 길이 막히면서 드나들기가 나빠졌지만, 기구한 사연을 지닌 석조여래좌상만으로도 둘러볼 가치가 있다. 한편 용화사 일대는 요산 김정한의 소설 〈수라도(修羅道)〉의 배경이 된 곳으로 마당 한 쪽의 기념비를 통해 과거 양산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595 문의 055-384-5111

○ 물의 기원을 찾아서 양산물문화관

2006년 낙동강 끝자락에 위치한 물금제1취수장을 리모델링해 개장하였다.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시하고 있으며 건물 상층 전망대에서는 바로 옆에 흐르는 낙동강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평일에는 40여 명, 주말에는 100여 명 이상이 다녀간다. 특히 올해 전시관 옆을 지나는 자전거도로가 개통되면서 부쩍 관람객이 늘었다. 자전거 거길 인증센터를 겸하고 있어 자전거 도로 종주자들을 위한 인증 스탬프 또한 이곳에서 받을 수 있다. 매주 월요일 휴관.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41-14 문의 1577-4359



○ 낙동강 따라 명품 라이딩 황산강 배랑길

물금취수장에서 시작되어 원동취수장으로 이어지는 약 2km의 자전거 도로, 낙동강 위에 데크형 교량형태로 설치되어 철길, 강둑 등 주변에 빼어난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코스가 험하지 않아 초보자도 쉽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으며 데크형 교량을 통해 마치 강 위를 달리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황산강'은 낙동강의 옛 이름이고 '배랑'은 벼랑을 이 고장 말로 옮긴 것. 이 길은 경북 상주에서 부산 낙동강 하굿둑까지 이어지는 '낙동강 자전거길(324km)'의 일부로, '4대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1757km)'에 포함된다. 특히 옛 영남대로의 일부였던 황산잔도를 따라 조성돼 옛 잔도의 흔적과 경파대, 동래부사 영세불망비 등 볼거리가 많아 라이더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행정안전부 선정 명품 자전거길 2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 낙동강을 바라보며 시 한 수 시인과 나

양산문화관 근처에 위치한 전통찻집. 오랜 시간 다년간 이들의 사연을 담은 시와 아름다운 시화가 온 벽을 장식하고 있다. 너른 창밖으로는 낙동강과 강변 공원이 내다보이며, 봄이면 카페 입구에 우거진 벚꽃나무에서 꽃비가 내려 환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고. 다양한 한방약차는 물론 동동주, 파전에 콩나물비빔밥 등 식사메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언제 들러도 입맛에 맞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카페 안쪽에는 좌식 온돌방이 마련되어 아늑한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에도 안성맞춤. 빼곡이 벽에 붙은 감상적인 시귀들을 읽다 보면 잊었던 시인의 꿈이 새록새록 다시 생겨난다. 새로운 데이트 코스가 필요한 연인이라면 고양이 두 마리가 반겨주는 이곳에 들러 향긋한 차 한 잔에 시 한 구절 지으며 낭만을 음미해보자.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39번지 문의 055-383-1924



○ 저렴한 싱싱한 모듬회 한 접시 수궁횃집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엽기적인 그녀의 고백이 울려 퍼졌던 오봉산 자락 아래 위치한 인심 넉넉한 모듬 횃집. 매일 저녁 다대포에서 직접 활어를 구입해 15년째 경영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1인당 1만천 원에 모듬회 한 접시에 매운탕은 기본이고 음료와 소주, 공기밥이 무한으로 제공된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부부의 푸짐한 인심으로 여러 명이 가도 부담 없이 제철 회 맛을 즐길 수 있다. 전어가 한창인 지금, 쫄깃한 전어 세꼬시가 당긴다면 지체 없이 수궁횃집으로 달려가자. ㉞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768-1

문의 055-384-2941



최고의 아버지로 우뚝 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조재국 생산담당님!

당신과 제가 만난 지도 벌써 25년을 넘어가네요. 참 길고 긴 세월이지만 아직도 25년 전의 일들이 생생합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하루 생산 본수가 1,000개에 불과했던 생산 공장에 사회 초년병으로 들어와 10,000본, 20,000본을 넘어 60,000본까지 달성했던 그 순간을요. 생산과 설비를 담당하면서 양산과 중국 공장을 누비며 우리는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당신과 헤어진 지도 벌써 3년을 넘어가네요. 당신은 중국에서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공장을 안정화시키고 있고, 저는 이제 세계 최신 설비를 갖춘 창녕 공장에서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 중국에서 당신과 같이 생활했을 때가 생각나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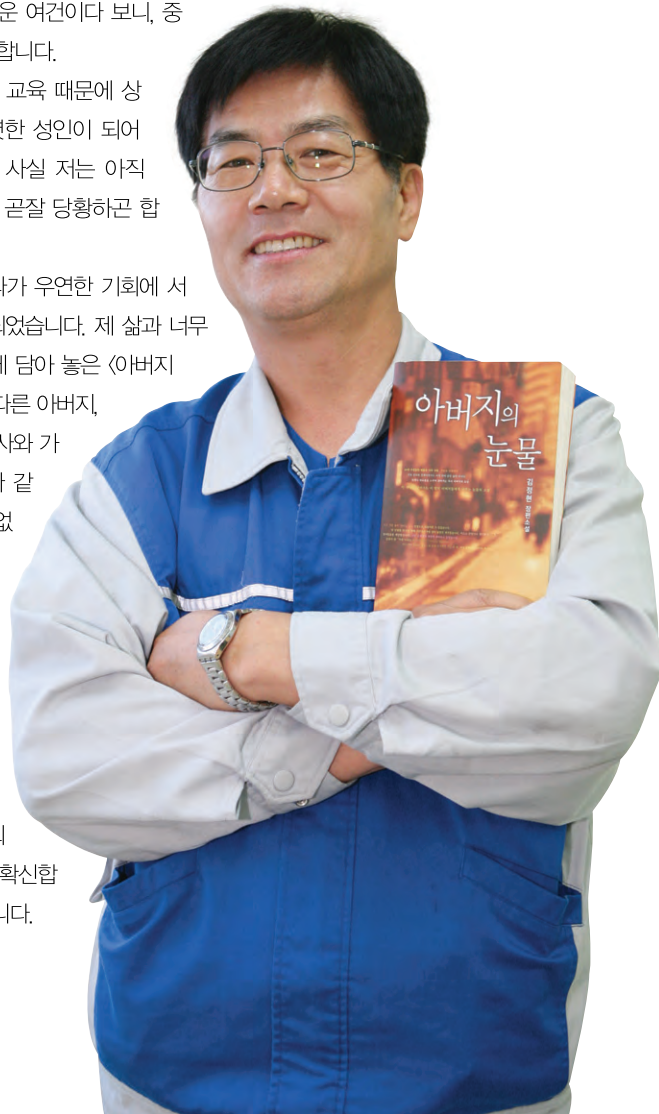
처음 중국으로 발령이 났을 때 당신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했었지요? 이제는 아이들도 어엿한 성인이 되어 아버지의 고충을 조금씩 알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아버지로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곤잘 당황하곤 합니다.

50대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서점에 들러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과 너무도 닮은 우리 시대 아버지의 고민을 진솔하게 담아 놓은 <아버지의 눈물>을 읽고 나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아버지, 당신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더군요. 이 책은 회사와 가정, 정을 오가며 앞만 보고 달려온, 바로 당신과 나 같은 아버지의 이야기니까요. '아버지의 눈물' 없는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더군요. 가정과 사회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는 현실 속에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조재국 생산담당님!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다소 험난하고 힘들더라도 지금처럼 깨끗한 정신 하나면 가정과 회사에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㉞



책 권하는 사람들

창녕 설비팀 조형건
부장이 중국 생산담당
조재국 담당에게 권하
니다.



<아버지의 눈물>
김정현 저
문이당 펴냄
정가 11,000원



Q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데요,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 혹시나 분실 하거나 고장 날까 노심초사입니다. 스마트폰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고,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가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3천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5명 중 3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고령자나 어린이를 제외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너무도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무장한 스마트폰. 일반 피쳐폰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고장으로 인한 수리, 분실 혹은 도난 시 소비자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바로 스마트폰 보험이라고 불리는 '휴대폰 보험'입니다.



휴대폰 보험이란?

각 통신사마다 신규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관련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의 분실 및 파손 시에 고객에게 보상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여 새 단말기 구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든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각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내 발생 도난/분실 사고만 보상하며 가입 당일 사고와 사고 이후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가입 익일 0시)이 후부터 통화내역이 없는 경우도 보상이 안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통신사 해지, 기기변경, 명의를변경 시 자동 해지되어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고폰은 제외됩니다. 각각의 통신사별로 분실을 비롯해 침수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 보상의 내용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 알아둘 사항은?

휴대폰 보험 서비스는 일반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가입할 보험회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다는 의미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사항은 거의 없고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만 하게 되는 셈이죠.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왕 가입할 서비스라면 분실이나 파손 시 보상을 받는 내용, 반대로 보상되지 않는 내용, 보상 절차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폰의 기종에 따라 가입여부와 보상한도, 이용금액 등이 달라지니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관련 보험 서비스]

※ 출처 : 각 통신사 홈페이지

서비스명	SKT 스마트세이프(50/40/19)	SKT 폰세이프 파손	KT olleh폰안심플랜(일반/스마트)	LG U+ 폰케어플러스
내용	휴대폰 분실 고객에게 단말기 보상 지원금 제공 서비스. 50과 40의 경우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스마트폰 키퍼와 디지털 콘텐츠(월 1회, 서비스 가능단말기에 한함) 제공.	휴대폰 파손 수리 후, 요금과 함께 선납부한 파손수리비 금액에 대해, 보험 보상청구를 하면 1년간 최대 30만 원까지 '파손수리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비의 일정 부분 지원하고 무사고 만기 시에는 기변환인권을 제공하는 고객 케어 프로그램.	휴대폰의 분실, 파손, 기타 보상에 관해 보장받을 수 있는 휴대폰 전용보험. 신규 구입 후 30일 이내 가입고객에 한함.
이용요금	월 5,000원 / 4,000원 / 1,900원	월 2,000원	월 2,900~4,700원(폰별로 다름)	월 1,900~4,400원(폰별로 다름)
보상한도	85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30만 원(1년 간)	상품별 최대가입금액과 서비스가입 휴대폰 출고가 중 작은 금액에서 고객 기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분실 시 최대보상금 55~75만 원
고객부담금	1차 보상처리 시 손해액의 30% 2차 보상처리 시 손해액의 40% (고객 필수부담)	5만 원(사고 당)	3~5만 원	5~18만 원
기타	보험기간 : 18개월(기간 내 2회까지 보상) / 상품별 보상한도액과 분실단말기 출고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함.	보험기간 : 24개월 / 파손수리비가 자기부담금 보다 적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보상범위 : 분실, 도난, 화재, 파손, 침수 등.	

가입과 혜택받는 절차는?

가입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번호이동시 휴대폰 보험이 포함된 요금제나 서비스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그럼 가입한 보험으로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요? 먼저 분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분실신고가 우선입니다. 신고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면 됩니다.

분실신고 이후에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접수를 하면 됩니다. 관련서류란 경찰서에서 교부하는 분실신고 확인증, 사고경위서, 신분증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서류 접수하는 곳에 제대로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두어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서류 미접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에는 심사의뢰를 통과해야 하고 보상을 하라는 승인과 함께 보상을 받을 대리점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보상 절차는 끝나는 셈이죠. 파손의 경우 다른 절차는 분실과 동일하지만 구비서류가 분실신고 확인증이 아닌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을 필요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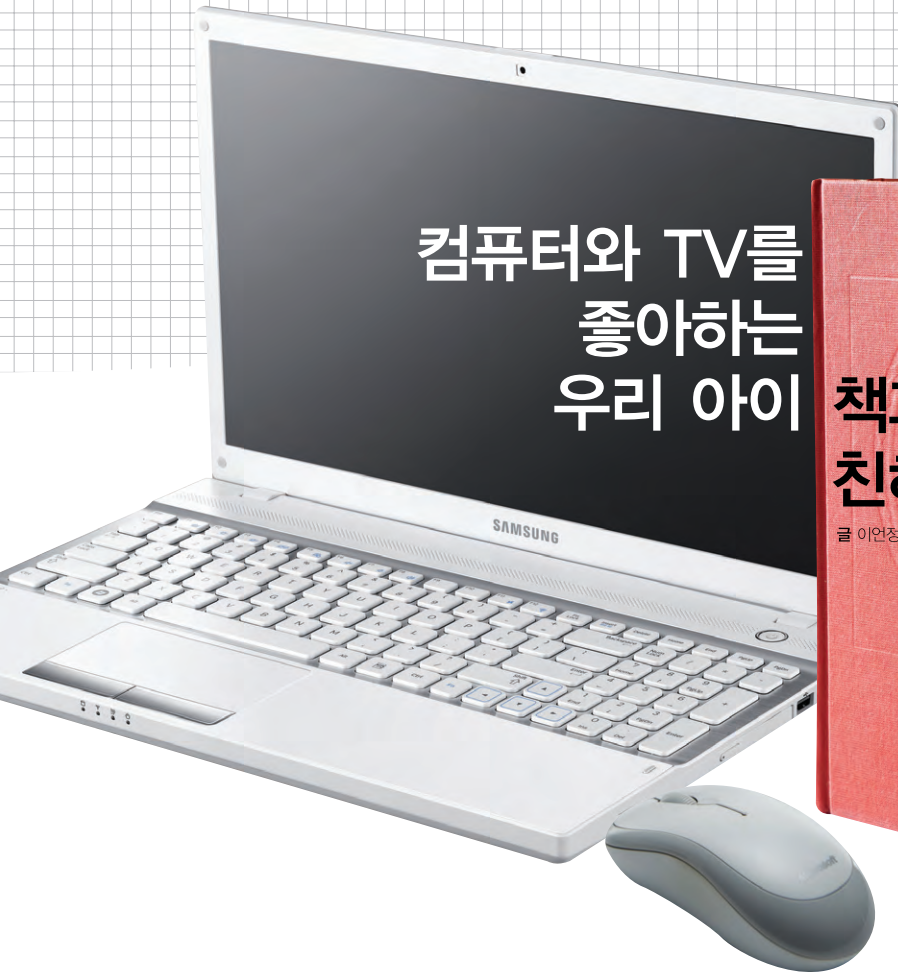
TIP 똑똑한 스마트폰 지킴이



휴대폰 위치 추적 어플 <여기요>
문의 www.durldy.com
휴대폰 분실 시 위치를 알아내고 각종 기능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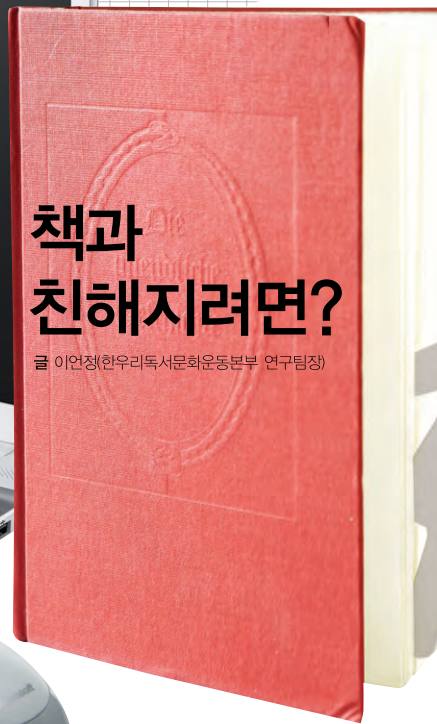
원격 휴대폰 관리 어플 <모락 MoLock>
문의 www.molock.co.kr.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원격으로 휴대폰의 기능을 잠그고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어플.



컴퓨터와 TV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

책과
친해지려면?

글 이연정(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연구팀장)



Q

저는 초등 2학년, 초등 6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책보다 컴퓨터, TV를 더 가까이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속상한 마음에 무작정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다 보니 아이들이 거부감만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또 독서 노트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서는 기본적으로 고독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공간 속에서 책과 교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도 책의 재미를 느끼고 배울 수 있지만 아이는 아직 고독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컴퓨터와 TV 대신 스스로 책을 좋아하고 읽기까지는 부모의 배려와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늘 책을 읽어주고 본인도 책을 읽는 엄마와 아빠는 아이의 책에 대한 친밀도를 높입니다. 유선 방송의 만화 채널을 언제든지 볼 수 있듯이, 책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부모님이 먼저 생각의 틀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은 활자와 종이, 그림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것 모두 독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책은 그 다양한 세계를 축약하고, 문자를 통해 표준화한 것뿐이지요, 나무에 대한 책을 읽었으면 나무를 직접 만져보고, 미술에 대한 책을 읽기 전에 미술관 나들이를 갔다 온다면 책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입니다.



TIP 학년별 어린이 추천 도서

· 초등학교 저학년

〈일기 감추는 날〉

황선미 글, 소윤경 그림 | 웅진주니어

아이의 눈에 그려진 어른들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으며 교사와 아이의 교감, 그리고 따뜻한 결말이 마음을 포근하게 만든다.

〈배꼽 빠지게 웃기고 재미난 동 이야기〉

박혜숙 글, 한상언 그림 | 미래아이

동과 관련된 다양한 옛이야기들을 구수한 입말로 구성하여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듯, 생생함과 재미를 전달한다.

· 초등학교 고학년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글, 김동성 그림 | 문학동네

천주교 탄압이라는 배경 아래 책방 심부름꾼 아이 장이의 눈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사회상이 한 편의 드라마 처럼 펼쳐진다.

〈종이 친구〉

엘렌 몽타르드 글, 김보미 그림, 김주경 옮김 | 주니어김영사

우연히 주운 수첩을 읽으며 주인의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제레미의 성장기다. 주인공과 함께 수첩 주인을 찾아가는 구성이 흥미진진하다.

어린이 독서 노트란?

감명 깊게 읽은 책의 내용을 노트에 적는 것이 독서 노트입니다. 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책에서 접근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훨씬 체계적으로 지식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독서 노트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책을 통해 얻는 감상과 정보를 노트라는 매체에 옮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독서 노트를 이용한 올바른 독서교육 지도 방법은?

1단계는 아이가 독서 노트와 친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제멋대로의 제목과 내용 설명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다그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의 답변을 질문과 함께 독서 노트에 적어 보도록 합니다. 그림일기 방식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단계는 독서 노트를 일기처럼 습관화하는 한편, 내용을 보다 번듯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때 들어갈 내용은 제목, 보다 발전된 감상, 줄거리 요약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 구절 등이 되겠습니다. 독서 노트를 목표치까지 썼을 때나 잘 쓴 노트가 있으면 상을 주거나 칭찬해 주는 등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독서 노트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단계입니다. 아이 스스로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토론이 이어지고, 그 토론 내용 역시 독서 노트에 간단히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책과 책 사이의 관계나 책과 다른 매체의 관계를 비교하고 분석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만으로도 어린이 독서 노트 작성과 활용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발전하여 주제별 독서 노트 작성으로 이어진다면 성인 못지않게 자신의 독서 활동을 관리하는 어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㉞





글로벌 수퍼맨들의 해외OET팀 넓은 세계를 향해

오. 늘. 도 달린다.

외부에서 넥센타이어의 가
파른 성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바로 창녕공
장의 전자동화 설비와 활발한 해외 마케팅
활동. 해외OET팀은 대외에 넥센타이어 브랜
드와 제품을 널리 알리는 전천후 홍보대사
라 할 수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그들의 생
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동현
사우

조현상
대리

강세경
사우





"승리로 O.E.T.팀
환영!!!"

조철암
대리

김권섭
팀장

김현석
이사

말, 몸, 끈기까지 타고난 멀티플레이어들

창녕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크라이슬러, 피아트, 미츠비시, 르노 등 세계 유수의 카메이커 회사들의 타이어 수주로 벡센타이어의 기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벡센타이어의 뒤에는 유럽부터 미국, 일본 등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달리는 해외 OE팀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이 배어 있다. 얼마나 노련한 베테랑 팀이기에 이리도 승승장구할까 생각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놀랍게도 본격적으로 해외OE팀이 꾸려진 건 2011년 6월이다. 구성된 지 1년이 조금 넘는 신생팀이 어떻게 이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것일까? 그 비결에 대해 물으니 김권섭 팀장은 부회장님 등 최고 경영진의 관심과 신속하고 전략적인 판단, 추진력을 비결로 꼽았다.

“당사가 초기 해외OE 시장 진입을 위해 단순 실무진의 대응으로는 불가할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소 등 유관부문의 신속한 대응 및 협조로 타 업체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글로벌 OE무대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면면을 보면 우월한 해외OE팀의 본색이 드러난다. 영어는 필수고 제2외국어는 기본. 거기에 시차가 다른 해외 카메이커 회사들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또한 빠져선 안 된다.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한 통 해도 12시간 이상 시차가 나는 해외인지라 새벽까지 기다려 통화를 할 때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단순히 외국어에 능통하고 체력이 좋다고 해외OE팀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타이어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카메이커 업체와 벡센타이어 간의 의견 및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해외OE팀 업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 팀의 업무는 쉽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칭할 수 있어요. 업무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글로벌 카메이커 업체의 차량 출시 계획을 입수해 참여의사를 밝히고 차량 사양에 따라 연구소 등과 일정이나 공정을 검토합니다. 우리 회사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은 필수이고요. 그 후 카메이커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공급업체로 승인을 하면 계약 일정을 수립해 개발 과정을 조율하며 납품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함께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우리 해외OE팀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세계 방방곡곡 넥센을 알려라

새로운 OE타이어를 개발하는 동안 진행상황을 확인해 카메이커 측에 보고하고 기술적인 조율을 하는 것도 해외 OE팀의 중요한 업무.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일즈보다는 타이어 생산 기술에 대한 지식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프로젝트 선정 이후 정식 납품이 되기까지 개발진도 관리, 이슈도출 및 해결, 카메이커와의 조율, 물류 시스템 확인 및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연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이 있어야 진정한 해외OE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어도 대외적인 인지도가 없다면 글로벌 카메이커 회사들이 우리를 알아줄 리 만무하다. 그래서 해외OE팀은 부지런히 세계 곳곳을 다니며 '넥센타이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계를 상대로 브랜드를 알리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름보다 먼저 실력을 알리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거죠.”

특히나 김권섭 팀장은 팀원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업무 처리를 항상 강조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캐치해 로드맵까지 제시해야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상황에 대한 이해와 비전, 해결책까지 생각하는 주체성이 해외OE팀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 할 수 있죠.”

타이어를 수주하고 개발을 거쳐 납품에 이르는 시간은 짧아도 일 년 반 이상이 걸린다. 그 사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순식간에 공든 탑은 무너질 수 있다. 계약을 따내고도 납품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해외OE팀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다.

세계를 향한 큰 걸음, 이제 시작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는 팀인 만큼 소통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매주 한 차례씩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커피브레이크를 통해 각자가 담당한 업무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



창녕공장을 찾은 크라이슬러 직원들



창녕공장을 방문한 미츠비시 직원들

환한다. 담당 지역의 시차에 따라 천차만별인 퇴근시간 탓에 한 달에 한 번 다 모여 회식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러한 소통 덕분에 돈독한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빠른 상황판단과 추진력 또한 이들이 가진 무기. 넥센타이어를 알리기 위해서는 관련 임원님들까지도 발벗고 달려가 PT도 직접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팀원들 또한 조기 업체선정을 위해 한 달이나 되는 바캉스 시즌에 앞서 거래처의 확답을 받기 위해 춘각을 다투며 유럽으로 날아간 일화는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넥센타이어가 유수의 카메이커 회사와의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낭보가 들려오지만, 해외OE팀은 여전히 스스로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더 널리 넥센타이어를 알려야 하고, 한창 개발 과정에 있는 타이어들을 무사히 납품하는 것도 이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업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현석 이사의 합류와 더불어 조직이 개편되면서 해외OE팀은 OE영업2팀과 3팀으로 재정비되었다. 비록 팀은 떨어졌지만 세계를 무대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팔방미인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어디서나 제 몫을 다해내는 이들이 있다면 글로벌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넥센의 미래 또한 밝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㉞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이것은 감히 완벽에 가깝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9월 11일 사계절용 고성능 타이어 N'Priz(엔프리즈) AH5를 출시했다. N'Priz(엔프리즈) AH5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도로조건과 기후에 맞춰 운행 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음을 낮추고 마모성능까지 크게 강화시켜 경제성까지 두루 갖춘 고성능(High performance) 제품군의 신제품이다.

N'Priz(엔프리즈) AH5라는 이름은 넥센타이어의 이니셜인 'N'과 찬사를 받을 만한 상품이라는 뜻을 가진 'Prize'의 조합어로 수준 높은 품질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N'Priz(엔프리즈) AH5는 타이어의 주요 성분인 구조 강화 카본을 최적으로 분산시킨 컴파운드를 적용하고 타이어 노면의 접지 압력을 균등하게 배분시켜 내구성 및 마일리지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 슬더 블록을 리브형으로 설계해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숙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블록엣지를 보강한 설계로 조종안정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4개의 최적 설계된 직선형 그루브는 배수성능을 극대화시켜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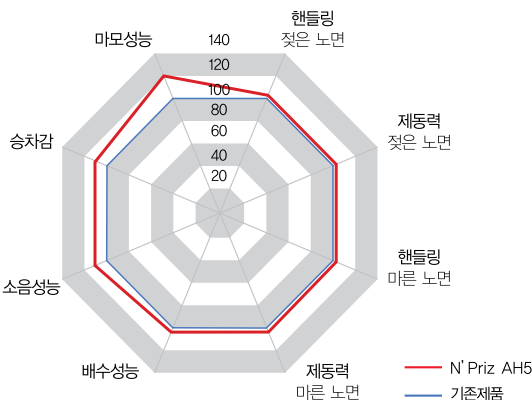
어떠한 기후조건에서도 뛰어난 주행 안정성을 발휘하는 신제품 N'Priz(엔프리즈) AH5. 팔색조 매력을 두루 갖춘 넥센타이어의 N'Priz(엔프리즈) AH5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기본의 기준을 바꾼 All Season 타이어 팔색조 매력 N'Priz AH5



땅은 날씨나 계절 등의 환경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한다. 땅에 직접 닿는 타이어는 땅의 모양에 무엇보다도 민감해야 하지만 매번 타이어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특히 사계가 뚜렷한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팔방미인형 타이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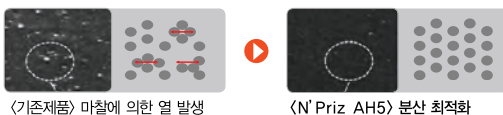
• 성능종합 레이더 차트



내마모 보강제 최적 설계로 마모성능 극대화

높은 비표면적을 가진 카본블랙 적용으로 고무와의 접촉면을 최대화 및 분산 최적화를 통해 마모 성능을 극대화하였다.

High Structure Carbon Black



넥센타이어의 신제품

눈길, 빙판길! 두려움 없이 달린다!

멀티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 WINGUARD ICE



해가 거듭될수록 겨울바람이 매섭다. 강설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폭설도 잦다. 특히 올해 겨울은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차가 크고 기록적인 혹한이 예상된다. 이제 겨울용 타이어는 기호가 아닌 필수다.



마치 스파이크를 장착한 것 같다

WINGUARD ICE(윈가드 아이스)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지형과 기후 특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개발된 겨울용 타이어다. 눈길과 빙판길에서 뛰어난 제동력과 핸들링 성능을 보일 뿐 아니라 우수한 마모 성능까지 자랑하는 멀티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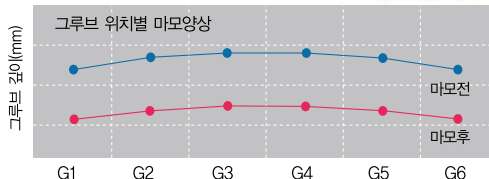
이러한 성능은 타이어의 트래드 패턴에 톱니형 그루브(Groove)와 지그재그 형태의 커프(Kerf)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WINGUARD ICE(윈가드 아이스)는 겨울철 어느 도로조건에서도 뛰어난 제동 성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다.

또 최적화된 카카스 프로파일 설계로 운행 시 타이어 형상변화를 최소화시켜 최상의 코너링 성능을 제공하고 새로운 실리카 컴파운드 적용으로 겨울철 눈길, 빙판길에서의 제동력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트래드 패턴 블록강성의 배분을 최적화하여 편마모를 방지하고 내마모 성능은 확보해 경제성을 높였다.

WINGUARD ICE(윈가드 아이스)는 눈길, 빙판길뿐 아니라 겨울철 어떤 도로조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올해 겨울용 타이어 시장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

• 마모성능 향상 설계기술

접지압 FEM 해석 기법으로 패턴 블록 강성 최적배분으로 마모성능 향상 및 편마모 현상 방지.



스노우 주행성능 최적화 설계기술

PTN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루브 위치 및 폭의 최적설계로 눈길 주행성능을 극대화



블록강성을 위한 블록 단순화 최적 설계로 눈길 방열기능 및 고속주행 안전성 확보



톱니형 지그재그 Inner그루브 적용으로 눈길에서의 주행성능 및 제동 성능을 향상







사장을 빼고도 직원이 넷이나 된다던 타이어 테크 진해점은 과연 컸다. 진해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타이어 판매점으로 매출도 손에 꼽힌다고 했다. 그러나 차분한 이희석 사장의 운영 비결을 들으니 진해점이 대단한 건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타이어테크 진해점이 큰 것은 손님을 위하고 서비스하는 넉넉한 마음이었다.

친구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

창원시 진해구에서 가장 유동차량이 많은 사거리에 자리 잡은 타이어테크 진해점은 넥센타이어와의 깊은 인연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 곳이다. 바로 이곳을 이끄는 이희석 사장이 넥센 출신의 영업맨이기 때문. 90년대 초반 양산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이 사장은 여러 사정으로 입사 4년 만에 퇴사를 결심했지만 당시 공장장의 권유로 영업직에 발을 들였다. 진주

를 거쳐 고향인 진해에서 넥센타이어 영업사원으로 일한 기간만 꼬박 10년. 그러한 이력 덕분인지 그에게 넥센은 여전히 같은 꿈을 품은 가족으로만 느껴진다.

“아무래도 남 같지 않죠. 이곳에 오가는 사우들을 보면 꼭 젊은 시절의 제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모두들 제가 넥센 출신인 걸 아니까 좋은 본보기가 되려면 더욱 열심히 달려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넥센인으로서의 생활에 중지부를 찍고 처음 이 곳에 매장을 연 게 2003년의 일이다. 이미 사업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던 터에 전부터 눈독들인 자리에 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덩석 계약서 도장부터 찍었다고. 차량이 많이 오가는 사거리라 타이어 전문점을 열기엔 최적의 장소였다.

“당시만 해도 주변에 타이어 전문점이 거의 없었어요. 타이어는 대부분 카센터에서 같이 취급하는 보조적인 상품에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타이어가 주력상품으로 모자람이 없다고 확신했고, 망설임 없이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과연 베테랑의 눈은 정확했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타이어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기 시작한 것. 한발 빠른 판단 덕분에 가게는 곧 자리를 잡았다.

“처음부터 저희 매장에선 거의 넥센타이어만 고집했어요. 진해에 소문이다 날 정도였죠. 물론 다른 브랜드를 찾는 분들도 계셨지만, 넥센 출신이라는 자부심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작은 것에서 빛을 발하는 배려

하지만 얼마 안 가 주변에 다른 타이어 전문점들이 들어서면서 경쟁이 시작되었다. 무언가 승부수가 필요한 상황. 그렇게 타이어테크 진해점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생겨났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것. 바로 매달 안부 문자메시지 보내기와 시운전이다.

“한 번 오신 손님들께 무조건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저장해 뒀요. 그리고 매달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안부 인사나 특별한 프로모션, 점검일 등 손님들께 먼저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거죠.”

기계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매번 날짜를 맞춰 수백 명의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보통 정성은 아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을 텐데, 그럼에도 이 사장은 덕분에 손님들과 다정히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며 웃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들에게 많이 바쁘지 않은 한 쪽 시운전을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꼼꼼하게 보면 손님들의 불편을 덜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리 긴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고요.”

더불어 날로 발전하는 넥센타이어의 품질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충분했다. 성실한 직원들이 만족스러운 제품을 알아서 척척 권하는데 어느 누가 이 매장을 마다할까. 넥센타이어의 품질이 친절한 진해점을 만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격이다.



손님들께 무조건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저장해 뒀요.
그리고 매달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손님들께 먼저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거죠.





소박한 꿈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씩

이렇게 창원시 최고의 타이어매장을 운영하지만 이 사장의 꿈은 소박하다.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타이어 매장을 하나를 더 내는 것, 지금 함께 일하는 네 명의 직원들이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자신만의 가게를 하나씩

갖는 것. 딱 그만큼이라. 더 큰 목표, 더 화려한 포부가 없느냐 재차 묻는 기자에게 이희석 사장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내보였다. 한평생 동근 타이어를 곁에 두고 살아서인지 인성 또한 모난 데나 뽀족한 곳이 영 보이지 않는다.

“손님들이 더 편안한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하고 싶고요.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손님들이 먼저 아시고 우리 매장을 찾지 않겠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음을 이희석 사장은 몸소 보여준다. 천천히 기반을 닦고,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매일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성공의 빛을 본 듯도 싶다. ㉞



이희석 사장 & 안종덕 대리

두 남 자 , 한 마 음 으 로 통 하 다

두 사람 모두 고백하기를, 서로 처음부터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 2011년 12월 진주에서 창원시점으로 온 안종덕 대리를 본 순간, 이희석 사장은 자신의 매장 담당자가 바뀌는 것도, 새로 온 담당자의 남자답고 고집 세 보이는 얼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안종덕 대리도 마찬가지였다. 기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래전에, 그것도 같은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선배의 매장이라니, 처음부터 단단히 긴장을 할 수 밖에. 그렇게 한껏 경계심을 갖고 만난 두 사람, 1년도 채 안 된 지금은 사이좋은 형제처럼 허물없는 사이가 다 됐다.

“이곳 진해점이 창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타이어 전문점이 된 건, 아무래도 이 사장님의 영업 경력 덕분이 아닐까요. 타이어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오랜 시간 점주들과 함께 일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매장에서 꽃이 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종덕 대리의 입에서 술술 흐르는 찬사의 말에 이희석 사장이 손사래를 친다.

“사실 저야말로 안종덕 대리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영업에 대해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저마저도 뭘까 싶은 일에 안 될 이유가 없다며 어려운 곳을 시원하게 굽어주는 기분이랄까요.”

안종덕 대리는 스스로가 점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느라 분주하고, 이희석 사장은 주어진 상황을 개선시킬 돌파구를 찾는 데에 능하니 둘이 만나 그야말로 완전체가 되었다. 영업만의 자유롭고 다이내믹한 맛을 아는 남자들인지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순간이 있다고, 서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마디 말도 허투루 뱉는 일이 없다는 두 사람에게서 일 년 사이 굳건해진 믿음이 엿보인다. 앞으로도 일 년 또 일 년, 넥센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이들의 승승장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Thank you!

제3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화학부문 금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전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생산팀 재료파트 소속의 처음분임조는 지난 8월 31일 울산MB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화학 현장개선 부문에 참가, 12개 팀 중 금상을 차지하여 전국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날 9번째로 발표를 한 처음분임조는 발표에 앞서 진병철 조장, 서상덕 조장, 김형일 사위가 '용감한 녀석들'과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참관자들과 심사위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최준옥, 이정식, 김대근 사위가 백코드, 점프 등 타

이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알기 쉽게 제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현장 개선을 위한 열정이 돋보인다"는 호평과 함께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행사장에는 양산과 창녕공장의 직원 70여 명이 수건과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고 동행해 열띤 응원을 펼치며 프레젠테이션 주목도를 높이기도 했다. 금상 수상 발표 후 김형두 파트장은 "3교대 근무로 연습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프레젠테이션과 퍼포먼스를 함께 준비한 모든 사우들 덕분에 가능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하며 끊임없는 현장 개선 연구의 의지를 밝혔다. 본 경진대회의 시상식은 오는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넥센타이어 한일 프로야구 레전드 매치 2012 개최

한국과 일본의 야구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넥센타이어 한일 프로야구 레전드 매치 2012가 지난 7월 20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렸다. 넥센타이어가 타이틀스폰서로 활약한 이날 경기에는 선동열, 이종범, 양준혁을 비롯, 김인식, 김성근, 이만수 등 대한민국 야구를 빛낸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해 일본 레전드팀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했다. 이번 레전드 매치는 자선경기의 형태로 지난 30년간 활동했던 양국 야구 스타들이 한데 모였으며 한국은 김인식 감독, 일본은 후지타 타이아 감독이 각 팀의 지휘봉을 잡았다.

‘무등산 폭격기’라 불리던 기아 타이거즈의 선동열 감독은 선발투수로 나서 1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 국보급 투수의 자존심을 지켜냈고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현역 시절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며 한일 레전드 매치 제1회 MVP에 올랐다. 이 밖에도 전준호, 양준혁 등 스타선수들의 활약으로 한국 레전드팀은 일본에 5:0 완승을 거두어 30년간 벌어진 7번의 경기에서 4승 3패의 우위에 섰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이날 매치에 앞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직접 야구레슨을 해주는 유소년 야구클리닉을 개최하였다. 잠실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야구클리닉에서는 다문화, 결손가정 어린이를 비롯해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등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 50여 명을 초청해 일일 코치로 참가한 선동열, 이종범, 양준혁, 기요하라, 사사키 등의 스타들에게 1:1 교습을 받도록 배려했다. 경기에 참가한 임구회 선수들 또한 경기 종료 후 참가비 일체를 아낌없이 기부하고 야구를 위해 기부하고 유니폼과 경기 용품을 자선 경매로 내놓아 넥센타이어의 사랑 나눔에 동참하기도 했다.

넥센타이어는 또한 레전드 매치에 대리점주들의 가족을 초청,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서대문구 흥은점의 이승만 대표는 “넥센타이어의 초청으로 역사적인 경기를 아내, 딸과 즐길 수 있어 매우 고맙다. 앞으로도 이런 대외적인 행사 후원이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판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깊은 만족감을 표했다.



일본능률협회컨설팅 주관

글로벌 고객만족도 3년 연속 1위



넥센타이어가 ‘2012글로벌고객만족도(GCSI, Global Customer Satisfaction Competency Index)’ 평가에서 국내 타이어 부문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6월 28일 일본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조사에서 고객만족도 타이어부문 1위를 차지하고 일본 오사카 미야코 호텔에서 인증식을 치렀다.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인증제는 일본능률협회컨설팅이 개발한 고객만족도 평가시스템으로, 이를 개별 국가별로 측정함으로써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국가별 글로벌 산업경쟁력 지표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글로벌 평가제도다.

이번 조사는 고객만족 요소, 고객가치, 글로벌역량, 충성도 등을 주요 평가영역으로 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2008년부터 업계 최초로 명품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고객만족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품질 및 고객서비스 강화와 브랜드인지도 상승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팀 넥센 N8000 장착

유럽 드리프트 레이싱 대회 종합 우승



넥센타이어의 프로 드리프트 팀인 ‘팀 넥센’이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남유럽 몰타에서 치러진 ‘2012 드리

프트 올스타 유러피언 시리즈’ 6라운드에서 우승하며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다.

넥센타이어의 초고성능 타이어인 N8000을 장착하고 경기에 참가한 ‘팀 넥센’은 글로벌 타이어사들을 제치고 1, 2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드리프트 경기는 기존 F1 경기나 NASCAR 경기와 달리 경주차량이 곡선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 위를 표류하듯이 질주하는 기술을 연출하는 박진감 넘치는 자동차 경주다.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라 이번 우승은 넥센타이어의 브랜드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주최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관세청에서 주최한 2012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AEO제도는 세계 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국의 세관당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 시스템, 안전관리기준, 재무건전성을 심사하여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대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넥센타이어는 부산·경남 분부 세관에서 주최한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 그밖에도 주요 경제단체 및 학계 인사,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증 받은 기업은 물품검사면제 등 세관 절차상 포괄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체결국가에서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한다.

경영관리담당 이현중 상무는 “지난해 5월 국내 타이어업계 최초로 AEO인증을 획득했으며, 수출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입 통관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시장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N'Prize AH5, Winguard ice 신제품 설명회 개최

넥센타이어가 신제품 N'Prize AH5, Winguard ice의 출시를 알리는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수도권과 서부, 남부권으로 나누어 개최된 본 설명회는 전국 대리점주들에게 신상품인 N'Prize AH5와 Winguard ice의 특징점을 알리고 프로모션 전략을 나누는 장으로 마련되어 지역에 따라 기념만찬, 간담회, 스피드레이싱 5라운드 경기 관람 등의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하반기 주력제품으로 출시된 타이어 2종은 각각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 최적화된 모델을 연구 개발하여 탄생하였다. N'Prize AH5는 사계절용 타이어로 편안한 승차감과 소음, 마모성능을 크게 강화시킨 고성능 제품이며, Winguard ice는 눈길과 빙판길에서 뛰어난 제동력과 핸들링 성능을 보이는 동시에 마모성능까지 향상된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다.

이병우 부사장은 새로 출시된 제품들에 대해 “해마다 새로운 성장을 기록하는 넥센타이어가 신상품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글로벌 공익 '핑크리본 캠페인'

2년 연속 후원

넥센타이어가 유방암 예방 캠페인인 '2012 핑크리본 캠페인'에 2년 연속 동참했다. 넥센타이어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서울 청계광장에 캠페인 부스를 설치하고, 방문하는 모든 여성 고객에게 핑크색 카드지갑, 핑크리본 배지, 유방암 자가진단 카드 등을 배포했다. 또 넥센타이어즈 마스코트인 덕돌이와 포토타임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타이어테크'에서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대리점을 방문하는 모든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유방암 자가진단 카드와 이벤트 응모권을 증정했다.



중 유력자동차매체 평가

'Best Ride'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지난 8월 6일 올해 중국시장에 출시한 CP672제품이 중국 최대 자동차 잡지 중 하나인 <기차족>이 주관한 타이어 전문 테스트에서 '올해의 Best Ride'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CP672제품은 넥센타이어의 독자 설계 기술을 적용, 기존제품보다 승차감과 소음성능, 내마모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중·고급세단에 장착이 가능하며, 현재 북경 현대의 랑동에 신차용타이어(OE)로 공급되고 있다.

<기차족>은 세계적인 자동차 잡지인 미국 <모터트렌드>의 중국 합작사로, 매년 타이어 테스트를 진행해 수상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중국 연도 차륜' 테스트 평가는 '동일시간, 동일 장소, 동일 차량, 동일인'을 원칙으로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올해의 테스트에서는 타이어의 제동 성능, 소음 테스트 뿐 아니라 타이어 안전을 위해 채용한 신기술 및 신제조 공법 등도 함께 고려되었다.



'2012 모스크바 국제 오토 살롱'

참가(MIAS2012)

넥센타이어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열흘간 모



스크바 크로커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모스크바 국제 오토 살롱(MIAS 2012)'에 참가했다.

'모스크바 국제 오토 살롱'은 2006년부터 개최되어 2년마다 격년으로 열리는 러시아·CIS 지역 최대의 자동차 부품 및 튜닝 전시회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전시회에 출시 예정인 신제품 16개를 포함한 총 40개 제품을 WINTER & All Season, SUV<R, Summer, Eco, New Technology 등 5개의 존으로 구분해 전시했다. 특히, 러시아가 겨울용 타이어의 선호와 판매가 우세한 시장임을 고려하여 넥센타이어의 다양한 겨울용 타이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윈터타이어 전시 공간을 부각시켜 이목을 끌었다.

넥센타이어 영업본부 이병우 부사장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및 CIS지역에서 넥센타이어의 공식적인 첫선을 보인 만큼 세계 속의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는 회사의 품질과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시장공략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최종전 개최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2012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최종전이 지난 9월 9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열렸다. 이번 5전은 시리즈 최종전으로서 역대 최대 참가대수인 10개 클래스에 총 250대의 차량이 참가해 한층 열기를 더했다.

경기가 개최된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의 기록계측 시스템이 250대까지 수용 할 수 있어 참가대수 250대가

조기에 등록 마감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해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가장 성공적인 모터스포츠 축제로 평가받았다. 관람객들은 경기 외에도 '골프 퍼팅', '나도 강속구 왕' 등의 이벤트와 120여 대의 동호회 주행, 택시타임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와 넥센타이어 전속 레이싱모델들로 구성된 그룹 '하이레이디'의 축하공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임직원과 함께하는 넥센 디자인 패턴 선호도 조사 이벤트



항상 창조적인 디자인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제품개발에 있어 가장 선두에서 활약하고 있는 연구개발본부 제품디자인팀에서는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이번 선호도 조사 이벤트 행사에는 2012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 동안 총 3일에 걸쳐 점심식사 시간 / 저녁식사 시간 전후에 사내 식당 정문에서 추진되었고 총 446명의 사우들이 참여하여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개발본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자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1등(2명) / 2등(4명) / 3등(6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총 2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패턴디자인 선호도 조사의 대상은 PCR 전용 패턴 디자인 1건과 미니밴 전용 패턴 디자인 1건, 종합하여 총 2건의 프로젝트였고 각 프로젝트 당 3건의 예비 선정작들 중 1건씩 최종 선정되었다.

PCR 패턴디자인은 고급세단을 타깃으로 한 Premium HP 타이어로서 향후 확대되고 있는 고급타이어 시장에 대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된 프로젝트이며 미니밴 패턴디자인은 최근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니밴 시장을 겨냥한 신규 프로젝트다.

제품디자인팀 최승일 팀장은 "금번 패턴디자인 선호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당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신규 제품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디자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었다. 최종 선정된 디자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美 컨슈머리포트 평가 우수 성능 입증

넥센타이어가 미국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가 실시한 최신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넥센타이어의 CP672 제품이 글로벌 브랜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3위에 선정되었다.

넥센타이어 CP672는 특수 설계 기술

적용으로 승차감, 제동력, 조정 안정성 강화를 통해 운전자가 원하는 요소를 다양하게 만족시킨 프리미엄 타이어다. 내수뿐 아니라 사계절이 뚜렷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완성차업체의 신차용 타이어(OE)로도 공급되는 넥센타이어의 주력 제품이다.

이번 타이어 테스트는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 조정 안정성, 수막현상, 승차감, 소음 등 10개의 항목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안전 운전의 필수 요건인 제동력과 안락한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소음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英 자동차 전문지 테스트에서 호평

넥센타이어가 유럽 지역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브랜드 파워를 알렸다.

넥센타이어는 영국 최대 자동차 전문지 <오토 익스프레스>가 실시한 최신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넥센타이어 N' blue HD 제품이 글로벌 브랜드 8개 제품과의 비교 평가에서 3위에 선정됐다.

1988년 설립된 <오토 익스프레스>는 최신 자동차 정보, 시승기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각종 테스트 결과를 전달하는 영국 최고의 자동차 전문지로 이번 테스트는 젖은 노면 및 마른 노면에서의 조정 안정성, 제동력, 코너링, 직선 및 곡선 수막현상, 소음, 연비 등 타이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N' blue HD는 특히 젖은 노면에서의 조정안정성과 수막현상 평가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으며, 총 10개 종합적인 항목에 걸친 테스트에서 종합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 유수 타이어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특히 최신 타이어

의 평가 결과에 대해 <오토 익스프레스>에서는 "유럽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넥센타이어가 이번 타이어 테스트에서 '강렬한 데뷔'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넥센타이어 이현봉 부회장은 "넥센타이어의 제품이 세계 타이어 각축장인 유럽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고 있다"며 "이는 넥센타이어의 디자인 및 품질 경영에 대한 노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식문화, 이대로 좋습니까?

직장인에게 회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거라는 회식. 이에 대한 넥센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사내 포탈을 이용해 <바꾸고 싶은 회식문화가 있다면>이라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비밀엄수! 사보 담당자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 철저한 보안 아래 넥센인들이 주섬주섬 물어두었던 가슴 속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특히 집중해주세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은 너무 힘듭니다. 술을 마셔도 빨리 집에 가서 쉬면 탈이 없을 텐데, 늦게까지 마시면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잦은 회식보다는 식사 후 불링 같은 간단한 운동이나, 영화 관람 등 술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참석하기 좋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식을 무조건 '술 마시는 날'로 여기기보다는 문화생활을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 같이 영화, 뮤지컬, 연극, 콘서트를 관람하는 거죠. 회식비용으로 좀 더 보람 있는 문화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술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술 먹을 때는 무조건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고방식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원샷 강요 문화를 타파합시다. '원샷' 하다가 '원킬'! 한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적정 금액의 예산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다 보면 업무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뉴 선정입니다. 팀원들끼리 메뉴에 대한 의견을 내고, 공정하게 사다리 타거나 제비뽑기를 하면 어떨까요.

술을 먹지 않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 자리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맨정신에 3차 노래방까지 따라가서 박수 치고 앉아 있는 건 이제 없어져도 괜찮은 문화 아닐까요? (물론 저는 술을 좋아하는 관계로 끝까지 갑니다.)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까지 회사 일처리의 미흡을 질타하지 말아주세요. 업무능력 부족을 만천하에 알리려는 태도는 정말이지 술 따르는 걸 중지하고 싶어요.

저녁 먹고 영화 보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또 영화를 보고 난 뒤 스피치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토론배틀을 해서 우수한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거죠.

안 먹으면 못 먹는다 뭐라고 하고, 먹고서 다음 날 힘들어하면 자기관리 못 한다고 하니 참 서럽습니다.

팀별 조인 문화 어때요? 같은 회사 직원이라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다른 팀과 함께 회식하고 싶어요.

소맥(소주+맥주), 소백산맥(소주+백세주+산사춘+맥주), 각종 알려지지 않은 폭탄주는 자제합시다.

공기 좋고 분위기 좋은 야외농원을 추천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수건돌리거나 피구나 발야구, 노래자랑 같은 게임을 하면 팀 분위기도 훨씬 좋아집니다. 저희 부서는 그렇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회식 자리에서 말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시대잖아요.

술로만 단합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 봉사활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풀고 기분도 좋아지는 회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꼭 퇴근할 때 짬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걸까요? 회식 번개는 이제 그만! 아무리 신입사원이라도 약속은 있습니다. 최소 이틀 전에 공지 후 실시해 주세요.

“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모두의 바람을 담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회식문화를
만들어봅시다.”



설문조사

이런 회식 좋아요



순위	내용
1위	영화, 뮤지컬 관람 등 공연 문화형 회식
2위	볼링, 야구관람 등 스포츠형 회식
3위	맛집 탐방형 회식
4위	야영, 워크샵 등 단합형 회식
기타	메뉴 선정시 제비뽑기, 정장 아닌 사복 회식, 오전 회식, 같은 직급끼리 회식

이런 회식 싫어요



순위	내용
1위	술이 최고야! 술을 억지로 혹은 계속 강요하는 회식
2위	1차, 2차, 3차, 4차... 끝나지 않는 회식
3위	고깃집, 횡집, 노래방, 호프, 매번 똑같은 코스
4위	어느 게 내 잔이지? 잔 돌리는 회식
5위	사생활 미보호! 예고 없는 당일 회식
기타	불금 회식, 업무 연장 회식, 아예 회식 없음

‘회식하는 날=술 마시는 날’이라는 공식은 넥센타이어도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넥센인들이 가장 바 꾸고 싶어 하는 회식문화로 술을 강요하는 회식을 꼽았네요, 2위는 길어도 너~무 길어, 브라우니도 울고 갈 기세로 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이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혹한 술자리를 대체한 회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1위는 영화, 뮤지컬, 공연 등 공연 문화형 회식이네요, 술 을 못 마시는 직원은 물론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군요, 2위는 볼링, 야구관람 등 스포츠형 회식입니다. 그 밖에 제비뽑기로 회식메뉴 정하기, 정장이 아닌 사복을 입는 회식, 오전에 하는 회식, 같은 직급 간 회식 등등 다양하고 재미난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팀장님들! 이번엔 극장에서 회식 한 번 어떠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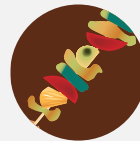
회식 술자리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술에 겁먹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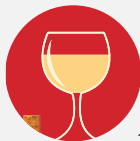
술을 못한다고 해서 회식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상사의 비워진 잔을 체크하고 먼저 술을 따를 줄 아는 씩씩한 예의만 갖춘다면 말이다. 무조건 거 절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으니 공손히 받되 눈치껏 조절하며 마시도록 하자.

친절한 서버로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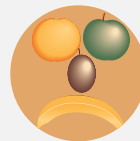
연차가 낮을수록 테이블에 필요한 음식과 주류, 물 수건 등을 체크하는 센스를 발휘하자. 술이 떨어지 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문하고, 식사 속도에 맞추어가며 적당한 양의 고기를 먹음직스럽 게 구워내는 내공 역시 필수.

구체적인 칭찬은 상사를 춤추게 한다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인 다. 더 나아가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본받고 싶다는 뉘앙스 정도면 100점짜리 칭찬이다. 상사의 체면도 살리고 호감도 살 수 있다.

미안해하며 떠나라



컨디션이 최악이라서, 약속이 있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게 돼서 아쉽고 미안하다는 성의를 표하면 오히 려 이미지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Vol.49 2012년 가을호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www.nexentire.com

길 위의 자유

F a l l i n L o v e





길 위의 자유

04

Open

그 사랑들은 가을의 모든 저녁처럼 아름다워라
시인 최갑수

06

Talk & Tip

가을은 사랑이여라

- Talk
로맨틱 무비로 본 시대별 연애 변천사
- Info
영화 속 데이트 따라잡기
- Tip
건어물 남녀를 위한 맞춤처방전

16

VS 123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22

Touch

창원 신신예식장 백낙삼, 최필순 부부

26

Oh! my 로맨스

Fall in Romance

- Story
넥센타이어에 사랑 걸렸네
- Trip
서상덕 조장, 이경화 부부의 외도 유람기
- About
세상의 모든 첫사랑을 노래하다
- Research
나는 지금 ○○○과 사랑에 빠졌다!

36

그림읽기

로맨틱한 명화 이야기

40

Art

페타이어 아트



표지이야기

이수동 / 어서 오세요
27.3x22.0cm
Acrylic on canvas
2009

그대 님은 양귀비
지난 계절 내내 피워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럼 많은 그대 오시기 좋게
구름도 많이 빌려 놓았습니다.
그대는 그저 아무도 없는 달밤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학시절, 내가 세든 하숙집은 일본식 기와집이었다. 격자무늬의 창틀이 거리를 향해 나 있었다. 그 창문과 창문이 보여주는 풍경이 좋아서, 나는 턱에 손을 괴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곤 했던 것 같다. 가을 어느 날이었다. 그날 역시 하숙집 창틀에 기대 거리를 바라보고 있던 나는 한 여자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참 예쁜 여자였다. 이마는 지구본처럼 매끈하고 둥글었으며 대리석처럼 단정했다. 약간의 귀여운 고집도 묻어나는 듯했다. 귀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선은 얇고 비스듬했다. 새하얀 명주천이 나풀거라듯, 이른 가을 햇살이 그녀의 귀밑머리 부근에 어루뎠다.

나의 시선은 그녀의 귀밑머리에 머물렀다. 밝고 투명한 살갗이었다. 연둣빛 실핏줄이 어슴푸레하게 비칠 정도였다. 몇 올의 머리카락이 귓바퀴 근처에 돌돌 말려져 있었다. 바람이 불자 하숙집 마당에 은행잎이 후두둑 떨어졌고 그녀는 골목에 돌아 사라졌다. 어느새 서쪽 하늘에서는 붉은 구름이 피어올랐고 멀리 자동차와 버스의 소리가 밀려 들어왔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시를 썼다.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이라는 제목의 시였다.

"아주 짧았던 순간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된 적이 있다

나는 창밖을 지나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

그 짧았던 순간 동안 나는 그만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여자를 사랑해왔던 것처럼

햇빛이 어린 꽃망울을 살짝 뒤집어

꽃의 노란 속살을 엿보려는 순간,

그 여자를 그만 사랑하게 되어서"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서너 해 전 가을이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였다. 붉은 구름이 피어오르던 서쪽의 골목으로 사라졌던 그녀는 알고 보니 나의 과선배였다. 그녀가 휴학 중이어서 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녀는 이듬해 복학을 했고 나는 다행스럽게도 그녀 가까이에서 그녀를 계속 짝 사랑할 수 있었다. 수화기 너머 그녀가 웃는 모습이 상상이 갔다. 웃—하고 웃을 때, 그녀의 웃는 입매는 별이 떨어지는 각도와 닮았던 것 같다.

그 사랑들은
가을의
모든 저녁처럼
아름다워라.



우리는 홍대 앞에서 만났다. 우리는 그동안 약간 늙어있었고 약간 지쳐있었고 그리고 약간은 인생에 못견뎌하고 있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청명한 밤이었다. 목덜미에 감기는 바람이 서늘했다.

“결혼했다는 말은 들었어요.”

“헤어졌어. 작년에.”

우리는 그냥 걸었다. 가끔 그녀의 팔꿈치와 내 팔꿈치가 가볍게 부딪히기도 했다.

“너, 나 좋아했지?”

어느 소품가게, 나무의자를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물었다.

“그랬죠.”

나는 의자 등받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왜 말 안 했어?”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어요.”

“신호를 줘야 아는 거야.”

“그만두시죠. 다 지난 일인걸요.”

그리고 보니 그녀와 단둘이 여행을 떠난 적도 있었던 것 같다. 그녀와 단둘이 도서관에서 함께 잡지를 본 적도 있

다. 잡지 한 권을 같이 나란히 앉아서 보곤 했다. 시집도 읽었고 영화를 보았고 꽃나무 그늘에 앉아 있기도 했고…….

그녀와 단둘이 참 많은 일을 했구나.

그날 우리는 세 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

“이제 가야겠어.”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그녀가 말했다.

“그래요, 잘 가요.”

택시에 오르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17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손이었다.

“너, 아직도 나 좋아하니?”

나는 그냥 웃었다. 하지만 사실은……, 이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난 지금이라도 당장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기에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시절에서 너무 멀리 왔다. 어디선가 날아온 은행잎 하나가 내 발치에 툭 떨어졌다.

반드시 잡아야 하는 사랑이 있다면 놓아주어야 하는 사랑도 있는 법이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랬던 것 같다. 이 세상 이별의 대부분은 그대로 영원한 이별이 된다고. 그때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은 영원히 갈 곳을 잃어버린다고. 그때 고백했어야 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야 우리는 이별하지 않았으리라.

곧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겠다. 찬 서리가 내리고 짧은 가을은 끝이 나겠다.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부는 대로,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대로 이런저런 핑계로 떠나간 그네들을 생각하겠지. 가을은 옛사랑을 추억하기 좋은 때. 떠나간 사랑들은 모두 쓸쓸하고 그 사랑들은 가을의 모든 저녁처럼 아름답기만 하여라. ㉞

글 최갑수

시인, 여행자. 계간 <문학동네>로 등단했으며 시집 <단 한 번의 사랑>을 펴냈다. 신문과 잡지에서 여행기자로 일하다 지금은 프리랜서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다. 여행을 하고, 여행 사진을 찍고, 여행에 대한 글을 쓴다. 여행을 하지 않을 때는 여행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요리를 한다. <사랑을 알 때까지 걸어가라>를 비롯해 여행사진 에세이를 몇 권 펴냈다.



응답하라 1960!

반응하라 2010!

〈맨발의 청춘〉에서 〈티끌모아 로맨스〉까지
시대별 연애 변천사

1960

‘데이트’라는 것이 따로 없었다. 남녀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거나, 거리에서 손만 잡고 다녀도 난리가 나는 시절이었다. 따라서 결혼은 대부분 중매결혼. 서로 어색한 사이로 만나 몇 번의 어색한 데이트를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섰다. 그 시대에도 연애를 하는 이들이야 있었겠지만, 그 당시는 연애 자체가 비밀 연애였을 터. 지금의 ‘불륜’ 커플들처럼 숨어서 만났고, 심지어 마지막 정리도 숨어서 해야 했다. 스킨십도 신혼여행을 가서 하는 것이 관례였다. 물론 연애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의식이 깨인 사람들이나 벌이는 일이었다. 데이트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금기시된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모든 남녀는 연애에 대한 판타지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영화 〈맨발의 청춘〉처럼 로맨틱한 신파 멜로의 흥행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맨발의 청춘〉은 〈진흙투성이의 순정〉이라는 일본소설을 원작으로 일본에서 이미 영화화된 작품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유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이 아이돌 스타로 전 세계 여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글
고윤희(시나리오 작가)

사진
이맹호



유신체제 안에서 '자유연애' 보단 '경제발전'에 신경을 쓰던 때였다. 그러다보니 60년대와 70년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은 모호했다. 고작 미국이나 일본 문화를 따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문화의 디테일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연애'다.

70년대 데이트는 주로 빵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빵을 나누어 먹은 어색한 남녀는 극장에 가서 〈별들의 고향〉을 보았다. 경아의 여자로서의 비극적 일생을 문호의 서술로 보여주는 독특한 구성의 이 영화는 그 당시 70년대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여자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였고, 남자들은 영화 속 신성일이 "경아~"하고 건들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런 마초적이고 남자다운 모습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했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했다. 그 '여자다움'이란 조신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남자다움'은 주로 힘이 세고, 의리가 있고, 여자를 리드하는 모습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고작 식모나 공순이, 호스티스 정도였다. 지금처럼 술을 잘 마시는 여자,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1970년대 영화 〈별들의 고향〉속 순종적인 경아와 남자다운 문호는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아이콘이었다.

1970



'다방'은 '카페'로 바뀌었고, 70년대 경제구제에만 힘쓰던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 여유와 문화의 즐거움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당연히 연애와 사랑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사랑'이 인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로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부터다.

〈맨발의 청춘〉의 양아치를 사랑하는 여대생이나, 〈별들의 고향〉의 경아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여자들이 뭔가 특이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일은 사라졌다. 멜로 영화의 신화로 일컬어지고 있는 배창호 감독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은 그런 바뀐 시대의 연애상을 잘 담고 있는 영화다. 같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잘난 여자를 좋아하는 잘나지 않은 남자의 순정을 그려내었다. 남자 주인공 공안성기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오로지 사랑에만 목숨을 건다. 영화처럼 더 이상 여자들은 마초 남성들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 숨어서 비밀 연애를 하던 60년대, 70년대의 젊은이들은 이제 길거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 다녔고, 골목길에서의 키스 정도는 스스럼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기쁜 우리 젊은 날〉처럼 더 이상 여자들은 마초 남성들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

1980

1990

90년대의 연애상을 <건축학개론>처럼 잘 담은 영화가 있을까. 70년대, 80년대의 대학생활은 민주화 투쟁의 정점이었다. 연애도 데모하며 머리에 띠를 두르고 최루탄을 맞으며 하던 때가 70~80년대였다면, 90년대에 들어서는 문민정부가 시작되어 민주화 운동의 의미가 희석되었다.

가부장제 의식으로 가득 찬 아버지 밑에서 군기 잔뜩 든 교육을 받고 자란 유약한 남자들이 많아진 만큼 똑똑한 여자들도 많아졌다. 90년대는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직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다. 여성들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남자를 울리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70년대의 <별들의 고향>의 경아처럼 남자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팔자 세어진' 비극의 여주인공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서서히 사라졌다. 여자도 데이트 비용을 내고,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성들은 더욱 똑똑해지고 우월해졌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줄어가기 시작했고, '골드미스' 나 '똥장녀' 나 시집 안 가고 나이 든 워킹우먼들을 비아냥대는 속어들이 등장했다. 남자가 어리고 여자가 나이 많은 연상연하커플에 손가락질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계인 취급을 받았다. 데이트의 주도권은 점차 여성에게로 넘어갔다. 당시의 영화들은 이런 새로운 여성상을 묘사하는 데 힘썼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영화 <엽기적인 그녀>다. 남성 위에 군림하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즉흥적이지만 순정적인 '엽기적인 그녀'는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를 풍미했던 '신세대론'의 여성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2000




〈찌찌한 로맨스〉, 〈티끌모아 로맨스〉속
돈 한 톨 없는 주인공들도
사랑을 하듯,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백수의 시대에도
연애는 계속된다.



2010

이제 남자도 여자도 백수가 되었다. 2010년대는 속칭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백수의 시대다. 영화들도 대부분 〈티끌 모아 로맨스〉, 〈찌찌한 로맨스〉처럼 부잣집 도련님이 아닌 백수 혹은 먹고 살기 힘든 이들의 러브스토리를 담고 있다. 60년대의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가정을 꾸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지금은 남자도, 여자도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다. 석사, 박사 백수들이 주위에 수두룩 뽐뽐하지 않은가.

'비혼족'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없을 정도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높아진 교육비에 낮아진 취업률. 시간 낭비를 줄이고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연애의 난제다. 첫 만남도 갖기 전에 SNS나 구글링으로 신상을 털어 사전 호감도를 결정하고, 스마트폰으로 미리 대화를 나누고, 연애의 진도도 확실히 빨라진 이들의 연애를 두고 '인스턴트식 쿨한 연애'라 부르며 눈총을 보내기엔 석연치 않다. 진흙탕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다는 말처럼, 뽐뽐한 청춘들의 유일한 위안은 연애이기에. "결혼은 힘들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아이를 낳아 기를 능력도 없으니 연애나 하자. 사랑도 사치고 결혼도 사치지만, 우리 함께 있는 지금이라도 행복하자. 순간에 솔직하고 충실하면 되잖아. 영화는 내가 보여줄 테니, 밥은 니가 사라."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영화 속 데이트 따라잡기

추억과 설렘을 찾아서

이젠 너무나도 익숙한 그녀 혹은 그, 한 사람을 만나 몇 번의 계절을 보내다 보면 자식 같고 부모 같고 형제 같은 경지에 이를 때가 있다.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오래된 연인에게 쳇바퀴 같은 데이트 코스는 권태만 부추길 뿐, 새로운 자극이 될 만한 여행이 절실하다.

〈가을로〉는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담은 영화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죄책감을 가진 남자 주인공은 여자가 죽기 전 미리 세워놓은 신혼여행 예비일지 기록을 따라간다. 이미 세상엔 없는 사람의 시선으로 펼쳐지는 장소들은 어쩌면 권태기 연인에게 아스라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적절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여행은 목포 우이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이도는 우리나라 유

일의 서막지형으로 목포에서 약 43km 떨어져, 3시간 정도 배를 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멋진 자연경관 때문에 이미 사진작가들 사이에선 출사지로 인기가 좋다. 우이도에서 시작한 여행은 전남 담양읍에서 순창으로 가는 24번 국도에서 끝난다. 아름답기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다. 특히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가로수길의 신비로운 풍경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 청아한 가을 하늘 아래, 연인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닐며 옛 추억을 더듬다 보면 여행이 끝날 때쯤엔 어느덧 새로운 설렘이 가득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마음은 사막처럼 황량하다. 하지만 이 여행이 끝날 때는 마음속에 나무숲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여자 주인공의 내레이션처럼 말이다.

〈가을로〉

아직도 영화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혹은 밥 먹고 영화보고 커피 마시는 데이트 코스를 정주행하고 있는가? 새로운 데이트 장소를 꿈꾸는 당신, 여기 로맨스 영화의 배경지를 주목하시라.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데이트 장소를 선택하여 올가을엔 사랑의 호르몬이 팡팡 솟아나는 특별한 데이트를 즐겨보자.



글
이영진
사진
이맹호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데이트

지적 호기심이 강한 연인들은 대부분 낭만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가길 원한다. 그러니까 데이트 성공 키워드는 문화적인 '로열티'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정신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면 성공적인 데이트가 되는 셈. 이런 연인들에겐 값비싼 레스토랑보다는 밤을 새워 시네마테크에서 영화를 보거나, 무박 2일의 문학 여행이 훨씬 낫다.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그림에 얹힌 사연을 이야기하며 상대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로맨틱한 공간으로는 미술관을 꼽을 수 있겠다. 이를테면 영화 <찌찌한 로맨스> 정배와 다림 커플이 처음 찾았던 경기도 광주의 영은미술관 같은 곳. 경기도 광주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영은 미술

<찌찌한 로맨스>

관은 현대미술을 소장, 전시할 뿐만 아니라 전문작가들의 작업을 지원하는 창작스튜디오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미술관 내에 광주필하모닉이 상주하고 있어 이름만 미술관일 뿐 그림, 음악, 창작공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예술 데이트 코스다.

주인공들이 빗속에서 키스를 나누었던 올림픽 공원,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몽촌토성의 산책로, 소마미술관도 데이트 장소로 제격이다. 특히 올림픽 조각공원을 마당삼아 펼쳐진 소마미술관은 아름다운 풍광과 미술 작품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심리학적으로도 미술관에서 여성이 프러포즈를 받아주는 확률이 높다고 하니 혹시 프러포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참고할 것.





사랑이 꽃피는 캠핑장

티격태격 다투며 미운 정이 드는 거라지만 싸움 때문에 연애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아니 될 말씀. 각자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였다면 노래방, 영화관보다는 탁 트인 장소가 좋겠다.

그렇다면 둘이 함께 일상의 속도를 반 박자쯤 늦출 수 있는,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캠핑 데이트는 어떨까. 캠핑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자연이 주는 느긋함이다. 너무도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각박한 현실에서 짧게나마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게다가 캠핑데이트는 함께 협동하여 주거와 음식을 해결해야 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 자연스레 신뢰와 유대감이 생긴다.

영화 <러브픽션>의 주인공 구주월과 희진이 택한 데이트 코

<러브픽션>

스 역시 캠핑장. 실제 장소는 강원도 홍천 모곡 밤벌유원지 내의 보리울오토캠핑장이다. 약 1km에 달하는 강변이 밤들만 한 자갈과 은모래로 덮여 있고 아름답리 밤나무와 미루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메기, 피라미, 쉬리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해 물고기를 잡는 재미를 맛볼 수 있으며 음수대, 수세식 화장실 등 부대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별다른 불편함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산책을 하다가 잠시 물가에 앉아 쉬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렇게 충분히 즐긴 뒤 모닥불 앞에 앉아 고기 한 점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는 행복한 시간.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은가. 편안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져오는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토라진 연인도 다정하게 어깨를 포갤 것이다.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어린 시절 '소풍' 하면 놀이동산에 가는 것이 다반사였지만 어른이라고 놀이기구를 타지 말란 법은 없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이기구를 타다 보면 서먹했던 사람과도 친해지는 건 시간문제다. 특히 연애 초반이라면 놀이공원 데이트는 함께 가볼 만한 데이트 코스 중 하나다. <위험한 상견례>의 유쾌한 두 주인공 현준과 다홍이 선택한 첫 데이트 장소 역시 놀이동산이다. 짜릿한 롤러코스터와 회전목마를 타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기에 이만한 곳이 없을 것. 비록 친구들과 함께라면 바이킹 맨 끝자리에 앉아 두 팔을 올리고 탈지연정 남자친구 앞에서 "오빠야~"라고 부르며 보호본능을 자극하고, 숨사탕 한입 떼어주며 달콤한 분위기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친해졌다면 솔직한 마음을 전하며 서로를 더 알고

<위험한 상견례>

싶을 터, 이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영화 속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다홍의 진짜 꿈인 소설가에 대해, 현준은 다홍이 소설을 쓰면 자신이 만화로 옮기겠다며 서로의 속마음을 말한다.

이들이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곳은 실제로 부산 송도를 배경으로 한 포장마차다. 부두에 정박되어 조금씩 흔들리는 배들을 배경으로 한 밤바다의 야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바다의 정취를 안주 삼아 오가는 술잔은 서로의 허심탄화한 대화를 이끌어내며 상대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영화에서처럼 꿈을 나눌 수 있는 상대라면 부산 바다 야경이든, 고향내 나는 대학가 앞 포장마차의 막걸리집이든 상관있겠나마는. ㉞





그 여자 편

여자는 귀염둥이 반려견 미미와 온종일 텅구는 게 낙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남으면 패션 잡지 한 권을 씹어 먹을 기세로 외우고 있어요, 남친이 생기면 사달라고 할 신상 리스트를 만들 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도 안 사주면 남자도 아니지'라며 흐뭇한 상상에 미소가 절로 지 어지는 찰나,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개팅이에요, 게다가 훈훈한 외모에 능력 있는 남자라고 하니 친구한테 술을 산 보람이 이제야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루만 더 지났 으면 친구한테 술값 1/6을 다시 뱉어내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의 소개팅이라 벌써 부터 손이 달달 떨리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만남에서 소개팅남의 쓸개와 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기로 해요.

눈웃음 필살기

남자가 여자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8.2초가 넘어가면 첫눈에 반할 확률이 높아요, 마음에 들 지 않을 경우에는 4.5초 만에 시선을 거두어요, 남자의 눈이 8.2초 머물게 하는 비책, 그것은 바 로 눈웃음이에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편안하고 귀여운 웃음을 짓는다면 남자는 금방 흐물흐물 녹아날 것이예요.

민낯 스타일 누드 화장

깨끗한 피부와 한 듯 안 한 듯한 화장을 한 여자에게 끌리지 않는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한 색조화장보다는 잡티를 가리는 피부 화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해요, 올 가을 아무리 스모키가 유행이라고 한들, 과한 아이라인은 남자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게 좋아요.

휴대폰에 집착하지 않는 센스

소개팅하러 나와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여자는 질색이에요, 이런 기분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아무리 절세미녀라도 아웃이에요,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즈음 휴대폰 전원을 끄는 시늉을 하거나 진동으로 바꾸는 센스를 발휘하도록 해요.

얼굴만큼 중요한 손

남자들이 무조건 얼굴만 보는 건 아니예요, 목덜미도 보고, 다리도 보고, 손도 봐요, 특히 가느다 랐고, 깨끗하게 정리된 손톱의 섬섬옥수로 찻잔을 들고, 머리를 쓸어 넘기면 무조건 반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어루만져 줄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김치국을 마시기도 해요, 소개팅을 나갈 땐 손도 신경 써야 해요.

소개팅 백전백승!

건어물 **남녀**를 위한
맞춤처방전

그 남자 편

쉬는 날마다 남자의 몸에선 문어 빨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파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TV에 나오는 걸그룹 소녀들을 감상하는 이 시간만큼은 자상낙원에 온 듯한 기분이에요. 하지만 소녀들을 비롯해서 그 어떤 여자라도 환한 대낮에 사각팬티 차림으로 TV와 소파와 한몸이 된 남자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현실을 깨달은 남자는 한숨이 절로 나와요. 이러다가는 조만간 빨판이 사리로 변할 것 같아요. 그때 시계인 줄만 알았던 휴대폰이 빠리리 울려요. 결혼한 친구 녀석이 와이프 친구를 소개해준다고 지금 당장 나오라고 해요. 이영애 뺨치는 외모라는 말에 남자의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요. '혹시 막돼먹은 영애씨 영애는 아니겠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속는 셈치고 한 번 믿어보기로 해요.

깔끔한 옷차림은 기본

소개팅 나온 여자가 키도 크고, 몸매도 좋은데 엄마 옷 훑쳐 입은 것 같은 차림이면 남자도 싫어요. 입장 바꿔보면 답은 금방 나와요. 외모가 첫인상을 좌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옷차림은 기본이니까요.

웃음보 팡팡 터뜨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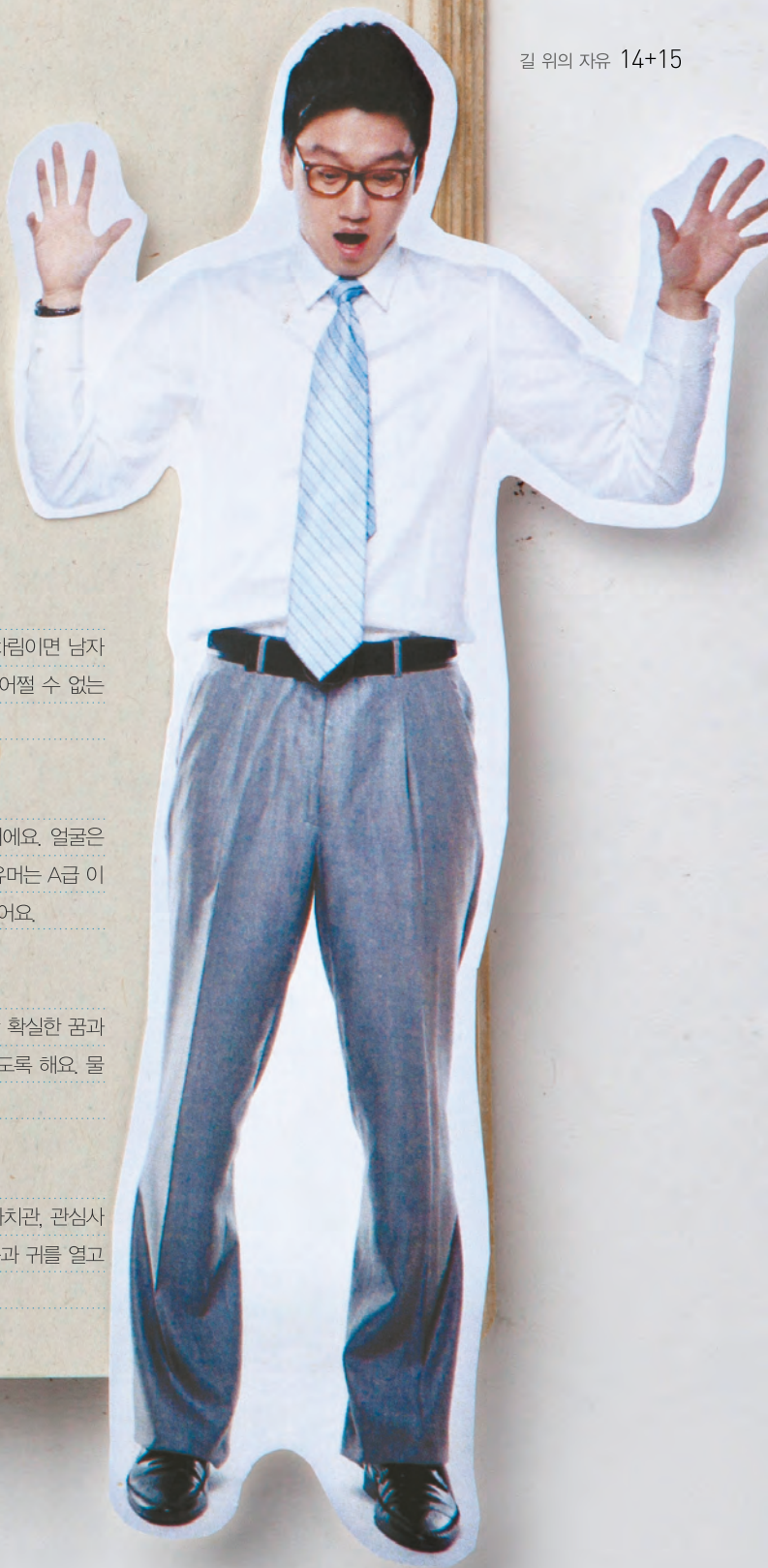
첫눈에 반하게 하는 건 스타일이지만 그 매력을 지속하게 하는 매력은 유머예요. 얼굴은 생각이 안 나도 그 남자가 했던 유머 퍼레이드는 자꾸 생각나게 돼요. 대신 유머는 A급이어야 해요. 시시한 우스갯소리나 할 참이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요.

비전 제시하기

학벌만 좋고 융통성 없이 딱 막힌 남자라면 사절이에요. 여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꿈과 비전을 가진 남자에게 마음을 열어요. 여자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남자가 되도록 해요. 물론 자다가 꾸는 꿈은 혼자 꾸는 게 좋을 것이에요.

대화가 통해야

위의 세 가지를 다 제쳐버릴 만한 강력한 무기는 대화가 통하는 것이예요. 가치관, 관심사가 통하는 멋진 상대라면 여자는 훌쩍 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눈과 귀를 열고 주변을 살핀다면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예요. ㉞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보다 더 모를 것이 바로 여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이성을 좋아할지 모른다면 적극적으로 배우고 연구해야 해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평생 무적의 솔로부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직장인 3, 6, 9년 차 증후군.
 나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정체되는 것 같고
 왠지 우울한 미래만 그려지는 것 같고
 이제 일은 손에 익을 대로 익었는데 더 힘든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다.
 내 안의 열정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누구에게나 이런 시기가 찾아오는 걸까.



매너리즘에 빠진 직장인, 방바닥만 긁고 있는 솔로,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은 들어라.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썰렁한 부장님 유머에 해맑게 웃어 재개는 건 기본이요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 밤새워 작성하고
커피 타달라는 부탁에 30분 동안 비법 찾아 공들이던
신입사원 시절을 떠올리니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일단 정신없이 어질러진 책상부터 정리하고
탐스러운 꽃 한아름으로 분위기를 싹 바꿔볼까.
이참에 생각만 하고 있던 기타 동호회에도 가입해야지.
상상만으로도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하루.

지금 이 순간, 내게도 새로운 활력이 필요해

죽어가는 연애세포에 심폐소생술을



거기서 거기인 남자를 만나 맘에도 없는 밀당에 힘쓰느니
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채운 지갑 들고 쇼핑하러 가고
혼자 카페에 앉아 책 읽고 커피 마시는 게 낫지 않아?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널리고 널렸는데
연애, 그거 꼭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다정하게 팔짱 낀 커플들 앞에만 서면 어찌나 작아지는지.
그렇다고 딱히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도 없다.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다가도 덜컥 겁이 나 주춤해버리는
내가 가장 꾸준히 하는 일이라고는
가끔 멍한 눈동자로 외롭다는 말이나 내뱉는 것뿐.
이러다가 얼마 남지도 않은 연애세포 전멸하겠대!
과연 내게도 사랑이 올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자기야! 아직도 날 보면 가슴이 떨려?”

어이쿠! 또 시작이다.

연애 3년, 결혼 6년, 그럼 도합 9년인데 아직도 떨리면 심장병이게.

처음 만났을 때 당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는데.

내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졸기차게 쫓아다녔었잖아.

이렇게 폭 퍼진 아줌마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구.

...그런데 당신 손 말이야. 되게 거칠어졌다.

가진 거라곤 몸뚱이밖에 없는 내게 와서 고생만 한 당신인데,

잠깐 잊고 있었나봐.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러지 말고 우리 간만에 분위기 한 번 잡아봐?

쑥스러워서 그간 말론 표현 못했지만 내 맘 알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때의 열정과 집념을 다시 한 번

수능 시험을 한 달 남겨둔 고3 땀 그렸다.
세상의 모든 공부는 혼자 다 짊어진 듯
새벽에 일어나는 수고를 마다치 않고,
쉬는 시간 10분도 아까워하며 수학문제를 풀었다.
컴퓨터 오락이 하고 싶어서, TV가 보고 싶어서, 쏟아지는 잠에 못 이겨
책을 덮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다.
'그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이후론 뭔가에 그토록 몰입해본 적이 있었던가.
귀찮으니까 대충대충, 뭐든 적당히.
팽팽했던 내 열정의 끈이 점점 느슨해져만 간다.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어느 날 문득 이리 살아 정말 행복하나 싶었다.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
그때의 순수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생활하기-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나의 온 존재를 바쳐보자.
자, 다시 한 번 열정의 불꽃을 당겨보자고. ㉒

열정적으로 생활하기





창원 신신예식장 백낙삼, 최필순 부부

45년 동안 매일 결혼식 올리는 부부

몇 달 전,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코 켜놓은 TV 프로그램에서 인상적인 노부부 한 쌍을 보았다. 여든이 넘는 할아버지와 열 살 터울의 할머니 부부가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1967년부터 무료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수 천만 원을 호가하는 호텔 결혼식이 유행하는 오늘에도 결혼의 진정한 가치를 역설하는 이 마음씨 고운 부부의 이야기가 궁금해 창원의 신신예식장을 찾아갔다.

#1 부부의 삶이 녹아든 곳 신신예식장

낮선 도시의 너른 대로 뒤편 골목, 알록달록한 건물 하나가 눈길을 끈다. 분홍, 연두, 주황색이 층마다 칠해진 이 건물 2층에 신신예식장이 있다. 평일 오후라 한가하러니 생각하고 올라갔지만 연달아 찾아오는 예약 손님과 문의 전화 덕분에 20분은 족히 기다리고 나서야 부부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혹시나 건물이 낡아 보여 손님들이 오시기 꺼려할까 봐 얼마 전에 새로 색을 칠했어요. 보는 분들 기분 좋아지라고 밝은 색으로 칠했는데, 어때요? 보기 좋은가요?”

건물의 자태를 칭찬하는 말로 인사를 건네자 안 그래도 밝은 할머니의 얼굴에 아이 같은 미소가 더해진다. 45년간 창원시 서성동에서 신신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백낙삼 할아버지와 최필순 할머니에게 이 건물은 오롯이 두 사람의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이나 다름없다. 가난하던 신혼 시절 거리에서 사진을 찍어 주며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장만한 가게를 조금씩 넓힌 게 지금의 신신예식장 건물이니 그야말로 부부의 인생 전부가 녹아든 곳이다. 그렇게 소중한 공간을 예전 자신들처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예식장으로 꾸민 것이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집이 가난해서 졸업을 1년 앞두고 그만뒀어요. 그 후로 계속 거리에서 사진을 찍으며 살림을 돌봤죠.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아끼고 고생한 덕분에 가게를 열고, 집을 사고, 건물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게 맞다 싶었죠.”



#2 1만3천 쌍의 부부, 한을 풀다

지금이야 세월이 켜켜이 쌓여 소박한 느낌이지만, 개업 당시만 해도 창원에서 손에 꼽히는 최신식 시설로 이름을 날린 신신예식장. 결혼사진 촬영비 60만 원만 받고 부케부터 드레스, 턱시도, 사회, 주례, 사진촬영에 폐백까지, 모두 스스로의 손으로 해결하는 덕분에 부부는 결혼식이 시작되면 정신없이 바쁘다. 잘 나가던 1980년대엔 하루에 최고 17쌍까지 결혼식을 치렀지만 요즘은 3쌍만 식을 올려도 힘이 부친다고. 그렇게 두 사람의 손으로 결혼시킨 부부만 전국 팔도를 넘어 해외까지 1만3천 쌍이 넘는다. 많은 부부가 다녀간 만큼 잊지 못할 이야기도 있을 터, 기억에 남는 일화를 여주니 예식장의 역사를 한데 모아놓은 《新新史記》 앨범을 펼쳐 보인다.

“이 집은 여섯 남매가 전부 여기에서 식을 올렸어요. 돈이 없어 일흔이 넘는 뒤에야 드레스를 입고 평평 운 할머니도 있었고요. 옛것제는 식을 올린 신랑이 고맙다고 인사차 왔는데, 대뜸 제가 통화 중이던 문의전화를 뚫어 받더니 꼭 여기서 결혼하라고, 자신이 해봤는데 절대 후회 안 할 거라고 선전까지 해주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 찾아오는 이들마다 사연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부부의 연을 맺고 돈이 없어 식을 올리지 못한 이들이었다. 그런 딱한 사정을 들으면 부부는 마음이 약해져 촬영비조차도 받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 달리 돈벌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주느냐 물으니 오�히려 행복한 대답이 돌아온다.

“결혼식의 대부분은 제가 주례까지 직접 보는데, 주례라는 게 일종의 무당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의 한을 풀어주는 무당이요. 난생처음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을 풀고 허례허식 대신 아낀 결혼비용으로 살림에도 보탬다면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스스로를 한 많은 부부들을 위한 무당이라 칭하지만, 기자의 눈에 비친 부부는 요술봉도 없이 신기한 마술을 부리는 베테랑 마술사들 같다. 평생의 꿈으로만 그리던 결혼식이 이들과의 상담을 통하면 당장 이번 주에라도 번듯하게 치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3 부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이들 부부의 선행은 예식장 봉사가 끝이 아니다. 못다 이룬 교육자의 꿈을 간직한 할아버지는 장학회를 설립해 수년 동안 지역 학생들을 도왔고, 올해는 이들 부부의 결혼 50주년과 신신예식장 개업 45주년을 기념해 100쌍의 부부에게 무료 결혼식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할아버지의 지치지 않는 선행의 바탕에는 언제나 남편을 믿고 따르는 할머니의 지지가 있다.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를 돕는 일로는 싸운 적이 없다니, 신신예식장을 거쳐 간 이들에게 멋진 본보기가 될 만한 천생연분이다.

물론 이 금슬 좋은 부부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2005년 백낙삼 할아버지가 결장암 3기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내의 끊임없는 내조 덕분에 암은 5년 전 완치가 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 신혼 같은 나날을 영위 중이다. “여보, 선물 때 그 얼굴 아직도 있어요?”하고 할아버지가 물으면, “예~ 멋있어요!”라며 소년처럼 웃는 할머니. 매일 몇 번이고 나누는 대화라는데 오�히려 듣는 내가 간지럽고 수줍어진다.

두꺼운 《新新史記》에 실린 사연을 듣는 사이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 떠날 때가 되었다. 바쁜 와중에도 친절히 옛 이야기를 들려준 부부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 대접받은 ‘약차’ 향처럼 은은했던 부부의 미소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어쩌면 매일 결혼식을 올리는 두 사람이기에 언제나 새로운 사랑을 품고 세상을 보듬을 수 있는 게 아닐까. ㉞





정리
이경수

넥센타이어에 사랑 걸렸네~

천생연분은 가까이 있다는 어른들 말씀, 곧이듣지 않았다. 운명의 상대는 갑자기 나타나 사랑에 빠질 거라는 착각 때문에. 하지만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천만에. 넥센타이어에서 피어난 북부지점 이종상 대리 & 김슬 커플의 리얼 러브스토리를 여기에 중계한다.

말로만 듣던 사내커플이군요. 두 분, 어떻게 사랑에 빠진 건가요?

김솔(이하 '솔'): 제가 막 입사해서 적응하기 어렵던 때에 선배로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오빠를 멘토라고 불러요. 모르는 건 하나 하나 알려주고, 점심시간 뒤편 줄리지 않는다는 문자와 함께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보내주고, 그런 배려에 점점 빠져들다 보니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이종상(이하 '이'): 첫 눈에 반한 제가 물량공세로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하.

당시엔 사내커플이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절대로 비추예요. 주변에서 생각 없이 던지는 한마디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사랑을 축하해줬지만, 이상한 소문이나 말들로 힘든 건 여자가 훨씬 크더라고요.

솔: 그래도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빠를 만났으니까요. 사내커플은 어느 회사, 어느 조직에서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조직의 마인드와 생각에 따라 사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사내연애의 장단점을 꼽는다면?

솔: 남자가 비자금을 못 만든다는 게 최고 장점이죠. 단점은... 회사에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 일부러 걱정해주는 건 알지만 가끔은 몰랐으면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 벅센타이어의 직무를 잘 알고 있으니 다른 여자보다 제 일에 대해 이해심이 많아요. 단점은 역시 보는 눈이 많아 비자금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사내연애를 하며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가장 힘들었을 때와 좋았던 때는 언제예요?

이: 힘든 건, 일로 받은 스트레스를 제가 솔이한



초대합니다 ★★

몰래몰래 사랑을 나누던 철부지 사내커플 이종상과 김솔이 결혼을 합니다.

저희 커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벅센타이어의 가족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2012. 11. 3(토) 오후 1시

인천시 송도컨벤시아(국제회의장)

테 품고 있는 걸 깨달았을 때요. 이해심이 많다고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닌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솔: 전 반대로 가장 좋았던 때를 얘기할래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을 때요. 제가 어리고 나이 차가 크다고 반대를 하셨거든요.

이: 나는 니가 맨 처음 내 고백을 받아줬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다정한 모습이 정말 부럽네요. 그럼 지금 사내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요?

이: 걸리지 마세요. 꼭! 비밀연애를 목숨처럼 지키세요!

솔: 결혼하세요. 꼭! 결혼은 안 하면 손해고, 하면 후회래요.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서로에게 가장 하고 싶은 한 마디!

이: 내 평생의 로또야, 나 닮은 예쁜 아이, 안 되겠니~?

솔: 평생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영원히 사랑할게요. ♪

재료파트 서상덕 조장, 이경화 부부

연애시절 그대로 외도 유람기

연애시절 추억의 여행지를 말해달라니 거제도 옆의 '외도'라는 답이 돌아왔다. 명색이 로맨스 트립인데 아이러니다. 부부가 함께 갔다가도 따로 돌아올 것만 같은 섬 이름 아닌가, 외도라니.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다. 사방이 푸른 바다, 잘 손질된 꽃나무 숲이 울창한 외도는, 서상덕 조장 부부의 장담처럼 절로 사랑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글
이경수

사진
손철희

oh! my Romance



제1옥성호는 사랑을 싣고

9시 20분 첫배를 타기로 하고 선착장 앞에서 기다리니 이른 시간 부산에서 달려온 서상덕 조장과 이경화 부부가 활짝 핀 얼굴로 도착해 인사를 건넨다. 어쩐지 '씩씩하다'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부부의 모습에 빠듯한 일정에도 절로 힘이 솟았다.

우리가 탈 배는 그 이름도 찬란한 제1옥성호. 평일 오전 첫배임에도 승객이 많다. 승선을 기다리며 아내는 챙겨온 선글라스를 꺼내 남편인 서 조장에게 씌운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만큼 섬세하고 멋 좀 낼 줄 아는 손놀림이다. 서 조장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아내가 꾸며주는 대로 얌전히 손길을 받는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순한 양처럼 보이다니, 이런 게 천생연분인가 싶다. 태풍이 온다더니 아직은 잔잔한 하늘과 바다 덕분에 뱃머리가 해금강 절경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십자동굴 쪽으로 향한다. 선장님 왈, 일 년에 열 번도 없는 귀한 기회라는 소리에 서상덕 조장의 눈이 빛난다.

“기자님들 진짜 운 좋네요, 십자동굴은 열 번 오면 한 번 들어가 보기도 힘든데!”

“나는 두 번째 오는데 오늘 보면 두 번 다 가보는 거다.”

“진짜? 와, 니 역시로 운 좋네. 우리도 니 덕분에 오늘 십자동굴 구경하나 보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접안이 힘든 십자동굴을 가까이서 보는 흔치 않은 기회는 아마도 행운의 여신인 아내 덕분인가 보다고 말하는 서상덕 조장의 얼굴에서 어쩐지 자랑스러움 같은 게 느껴진다.

소년과 소녀, 사랑에 빠지다.

20여 분의 해금강 유람을 마치고 드디어 외도에 정박한 제1옥성호. 그저 조그만 유원지 정도를 기대했더니 섬 전체가 잘 꾸며진 정원 그 자체다.

“여기도 많이 좋아졌네? 전에는 저런 동상도 별로 없었는데.”

어안이 빙빙한 기자와 달리 부부는 손을 맞잡고 익숙한 듯 섬 정상을 향해 난 산책





로를 오르기 시작한다. 외도에서 데이트를 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때의 설렘은 그대로인 듯 두 사람의 눈빛이 축축하게 추억에 잠겼다.

서상덕 조장과 이경화 부부, 그 인연의 시작은 20여 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간다. 한 살 터울인 두 사람은 중학생 시절 동네에 살던 이는 오빠, 동생 사이였다고, 손대면 터질 것 같은 사춘기 시절, 먼저 사랑에 빠진 건 서상덕 조장이었다.

하지만 새침했던 경화 씨는 그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고, 소년 경덕은 이내 마음을 접었다. 니가 싫으면 나도 됐다, 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좋았던 사람이 냉랭해지자 아쉬운 건 경화 씨였다. 내가 너무 튼겼나, 후회를 하며 이번엔 반대로 고백을 하고 따라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무뚝뚝한 거절. 뒤늦게 애타는 소녀 경화의 마음을 몰라준 소년 경덕은 은근한 나쁜 남자의 매력이 있었다고.

외도 정상에서 사랑을 외치다

사춘기 시절 호지부지 끝이 난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다 다시 연락이 닿은 게 10여 년 전, 서경덕 조장이 거제도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였다. 뒤늦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때부터 불타는 연애를 시작했다. 부산에 사는 경화씨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거제도를 찾았다. 섬에 다리가 놓이기 전이라 남포동에서 쾌속선을 타고 한 시간여를 달리는 고된 여정을 뱃멀미까지 참아가며 오간 것이다. 그렇게 와준 경화씨를 데리고 서경덕 조장은 이곳 외도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둘이서 가만히 산책길을 걷노라면, 그 섬 정상에서 너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더 바랄 것이 없던 시절이다.

정원 한쪽에 마련된 벤치에서 아이스크림을 할짝이며 연애담을 듣다가 프리포즈를 물으니 부부가 약속한 듯 웃음을 터뜨린다.

“제가 1998년에 미국에 잠시 갔었어요. 그때 명품 브랜드의 여자 향수를 샀는데, 줄 사람이 마땅히 없어 갖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3년 후에 그걸 주면서 프리포즈를 했죠. ‘이거 3년 된 긴데 줄 데도 없고 마, 너 쓰라’ 그러면서.”

“그게 프리포즈였어요. 진짜 멋있게 경상도 식으로.”

경상도 남자는 길에서 주웠다면 반지를 건넨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같이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그 향수마저도 좋기만 했다니, 경화씨도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던 게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환히 웃는 얼굴이 유난히 닮은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되어 어여쁜 딸을 키우며



“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온 경화씨와 서상덕 조장은 이곳 외도에서 산책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

”





8년째 함께 살고 있다. 성실한 서상덕 조장은 주말이면 피곤함도 잊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고, 내조의 여왕 이경화 씨는 야구와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건강식을 챙겨준다.

태어나자마자 못생겨서 아빠의 음주를 불러 일으킨 일곱 살배기 딸은 깜짝 놀랄 만큼 귀엽고 예쁘게 커서 틈만 나면 발레와 벨리 댄스를 추며 애교를 부리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나날이다.

연애시절 자주 갔던 거제도의 함흥냉면집에서 오랜만에 추억의 육수 맛을 보고 옛 이야기에 즐거운 부부의 모습에서 기대했던 짜릿한 로맨스 이상의 사랑이 엿보였다. 장난치듯 티격태격하면서도 꼭 붙어 떨어질 줄 모르는 서경덕 조장과 이경화 부부. 씩씩한 그 모습 그대로 백 년을 해로할 이들의 로맨스는 아직 진행 중이다. ㉞



글
이경수

일러스트
박대진

소년과 소녀, 세상의 모든 첫사랑을

노 . 래 . 하 . 다 .

그녀의 까만 눈을 기억해.

촉촉한 그 빨간 입술도 갈색머리 향기도.

이기찬 'Please'

‘남자의 첫사랑’을 생각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맑은 눈동자와 무엇을
바르지 않고도 앵두 같은 입술, 부드러운 긴 생머리. 천생 소녀 같고 여자 같은 모습에
덜 자란 남심이 흔들리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분홍 스웨터를 건어 올린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황순원 '소나기'

그 옛날 '소나기' 시절부터 첫사랑들의 무기는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연약함과 순결함이라 할
수 있다. 가녀린 몸집에 마냥 흰 살결도 모자
라 분홍색 스웨터라니. 같은 여자가 봐도 사랑
스러울 법한 모습인데 남자들이야 오죽할까!

달콤한 노래를 부르면 너의 두 눈이
미소 짓고 네 볼에 입 맞추면 수줍어하지.

SG워너비 '해바라기'

우리의 첫사랑 소녀들은 웃음도 많고 수줍음도 많다. 낮간지러
운 상황에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고, 조금만 가까이 가면 볼
이 발그레지기 다반사. 답답하다 싶을 만큼 조용하고 소극적인
모습도 '여성스러움'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첫사랑의 환상.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엔
곱게 적어 함께 부친 하얀 손수건.

트윈폴리오 '하얀 손수건'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첫사랑의 특별함은 바로 '이루어질 수 없
는' 결말에 있다. 수험공부, 이사, 친구의 친구 등등... 이별의 이유
야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절절한 사연을 품고 있다. 미완인 채로
봉인된 청춘은 남자들의 마음에 영원한 각인처럼 새겨져 있다.



로맨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으레 빠지지 않는 무적의 신화는 바로 첫사랑이다. <한겨레21>이 취업전문 포털 '잡코리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6%의 남자들이 첫사랑이 생각날 때 로맨스를 꿈꾼다고 한다(기혼자 176명 포함, 응답자 502명). 처음이라 서툴렀고 그래서 더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화와 노래, 글 속에서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찢고, 말하고, 불렀던 첫사랑의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낸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구부정한 어깨에 가는 머릿결 쉴쉴한 미소가 흘러.

이소은 '소년, 소년을 만나다'

예쁜 여자들에게 곧잘 반하는 남자와는 다르게, 여자는 비교적 평범한 남자와 첫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들여 찾을 수 있는 매력에 끌리는 편. 특히 혈기왕성한 또래와 달리 사색을 즐기는 쉴쉴하고 병약한 미소녀 타입이 유독 인기가 많다.

반짝이는 눈망울에 멋진 니 모습 매일매일 스쳐가는 너의 향기가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졌었어.

성연 '첫사랑'

2차 성징과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한 시절의 첫사랑은 흔히 '향기'로 기억되기도 한다. 달콤한 꽃향기나 상큼한 삼푸 향은 물론, 땀 냄새마저도 첫사랑의 것이라면 잊지 못할 향기로 남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후각, 남성은 시각을 통해 연애상대를 고른다고.

상냥한 눈 귀여운 머리 날씬한 몸.

자우림 '애인발견'

첫사랑에 빠진 여자의 능력 중 하나는 '상대방 미화하기'. 처음에는 바보 같던 눈, 지저분한 머리, 비쩍 마른 몸이었는데 사랑의 마음이 싹틀수록 그마저도 멋지게만 보이는 것이다. 사랑에 빠진 모든 이들이 그렇지만, 특히나 첫사랑의 공작지는 강력한 법이다.

나는요 오빠가
좋은걸~ 어떡해!

그 풍요롭고 부드러운 머리칼과, 놀람과 기쁨에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눈동자, 때로는 겹겹쩍게 미소 짓는 얇은 색 입술, 곱상하게 자랐음을 드러내는 목덜마.

예쿠니 가오리 '냉정과 열정 사이'

남자만이 고정된 첫사랑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여자들의 첫사랑 또한 비슷한 패턴을 공유하기 마련인데, 책 구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남자' 보다는 '소년'에 가까운 섬세하고 예민한 이미지다. 2, 30대 여성들이 어린 아이돌에 여전히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 ㉞



대한민국 직장인 홀릭 리서치

“나는 지금 ○○○과 사랑에 빠졌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일주일에 4번 이상 야근을 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2개 이상의 취미를 가진 사람이 약 87%에 달한다고. 일하기도 바쁜 시간을 쪼개 열중하는 것들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다양한 설문 결과를 통해 본 당신이 지금 사랑에 빠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 자신과 싸워 끝내 이기리라

마라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취미 생활 중 절반가량이 신체활동. 그 중에서도 마라톤의 인기는 압도적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71.1%가 한 번 이상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39.8%라니, 그야말로 온 국민의 취미생활이라 할 만하다.



온라인에 스트레스를 풀자!

블로그

2009년 7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923명 중 34.9%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고. 주로 개인사를 기록하는 블로그 활동은 특히 업무 시간 중 틈틈이 즐기기는 소일거리로 인기를 끌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SNS가 빠르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중.



나도 신데렐라~ 일낼라~

악기 연주

모든 것은 아이유와 장재인, 그리고 세시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이 나타난 이후 낙원상가의 기타 판매율은 400% 이상 증가했고, 모두가 슈퍼스타인 양 기타를 튕겼다. 직장인 5명 중 2명이 기타를 배울 동안 한 명은 피아노, 다른 한 명은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있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키덜트 족

아이(Kid)와 어른(Adult)의 합성어 키덜트(Kidult). 이들이 열광하는 것은 RC카, 프라모델, 피규어와 미니어처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장난감 같은 이 리스트를 유치하다고 치부하면 큰 코 다친다. 많은 매니아를 거느린 건담 프라모델의 경우 수 십 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취미다.

오천만의 취미생활

독서·영화 감상

Oldies But Goodies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영화와 책은 직장인들이 손쉽게 빠져들 수 있는 최고의 친구들. 휴가를 아예 북캉스로 보내는 사람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취미들도 요즘은 온라인 게임에 점점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혼자 있고 싶어요

휴식

엠브레인에서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휴식'(37%)이었다. 2위인 음주가무와 약 10% 포인트 차이. 독립된 공간에서 충분히 푹~ 쉬는 것 참 쉽고도 어려운 홀릭 비법이다. ㉮



〈훅친 키스〉 / 1780년 / 유화 /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시 미술관

로맨틱한 영화 이야기

사랑이라는 관례

사랑은 관례적인 것이다. 연인들은 사회적 관례에 따라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한다. 로맨틱한 사랑은 관례와 상관없다가나, 관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들 쉬이 생각하지만 실은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관례'에 따라 연애를 하는 것이다.

사랑을 그린 그림 또한 사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틀, 즉 관례를 따른다. 예컨대 서양 그림에서는 연인이 입을 맞추는 그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 즉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런 그림을 보기 어렵다. 사실 동북아시아에도 연인이 입을 맞추는 그림이 있기는 있다. 한데 그런 그림은 모두 춘화, 즉 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민망하지 않도록 옷을 갖춰 입고, 딱 보기 좋을 만큼만 사랑을 표현하는 그림은 서양의 그림이거나 서양의 양식을 받아들인 이후에 제작된 그림이다.

요즘 TV를 보면 드라마 속 연인들이 입을 맞추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나온다. 심지어 개그 프로에서도 남녀 간에, 혹은 남자들끼리 입을 맞춘다. 남녀노소 다 보는데도 상관없다. 키스는 아하지 않은 것인 양, 사랑의 순수한 표현인 양 취급된다. 막상 키스를 했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잘들 알 터이지만 이 기묘한 유행에 묻어간다.

푹푹한 사랑의 기억을 담다

프랑스 화가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Jean Honoré Fragonard, 1732-1806)는 남녀 간의 애정을 야릇하고 섬세하게 묘사한 그림으로 유명하다. 보는 사람이 절로 얼굴을 붉힐 만큼 야한 그림부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게 하는 그림까지 다채로운 그림을 솜씨 좋게 그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큼하고 푹푹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다.

화면 오른쪽, 열린 문 안쪽으로 나이 든 여성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 여성들이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 있다 잠깐 밖으로 나온 젊은 여성을, 기회를 노리고 있던 남성이 끌어당겨 볼에 입을 맞추다. 입술이 서로 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볼 한복판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입술에 가까운 여기가 참으로 묘한 부분이다. 이 그림에서처럼 어떤 이들은 상대의 입술에 직접 입술을 대기 전에 이 지점을 먼저 짚는다. 마치 겨냥이 빗나간 양, 짐짓 쏙스러운 듯, 예의라도 차리는 듯, 키스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열렬한 사랑의 흔적들을 그리다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Edvard Munch, 1863-1944)는 죽음과 불안, 공포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은 남녀상열지사도 꽤 많이 그렸다. 사랑은 죽음과 함께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불안과 강박의 원천이었다. 그가 그린 <키스>는 몰아지경에 빠진 연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맞닿은 입술을 비롯하여 얼굴도 표정도 구분되지 않을 지경으로 뒤엉켜 한 덩어리가 되었다.[그림 1] 그런데 이처럼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희열이, 이별의 순간에는 흔적조차 잡히지 않는다. 뭉크의 <이별>은 제목 그대로 사랑의 끝을 그린 것이다.[그림 2] 가슴을 그려진 남성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해변을 걷는 여성의 모습은 당장이라도 바람과 풍경 속에 녹아들어 지워져 버릴 것만 같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여성의 머리칼은 바람을 타고 뒤로 뻗어 와서는 남성을 애무하는 듯 희롱한다. 사랑은 깨졌지만 남성은 여성에게서 놓여나지 못할 것 같다. 사랑이라는 열매는 달콤하지만, 한 쌍의 연인이 희희낙락하려면 이들을 둘러싸고 몇 사람인가가 한숨과 눈물을 쏟아야 하는 것이 사랑의 잔혹한 이면이다.



1 <키스> / 1895년 / 목판화 / 오슬로 뭉크 미술관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2 <이별> / 1896년경 / 유화 / 오슬로 내셔널 갤러리





〈갑판 위에서〉 / 1818-1820년 / 유화 /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시 미술관


Profile 이연식

미술사가로 미술과 관련된 저술, 번역, 편집, 강의를 한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를 졸업했다. 〈미술영화 거들떠 보고서〉, 〈위작과 도난의 미술사〉,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눈속임 그림〉, 〈아트 파탈〉을 썼고, 〈무서운 그림〉시리즈, 〈맛있는 그림〉, 〈영화의 거짓말〉, 〈다케시의 낙서 입문〉, 〈무서운 그림으로 인간을 읽다〉를 번역했다.

사랑의 행복과 설렘을 느끼다

독일 낭만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는 웅혼한 풍경에 숭고한 감정을 담은 그림으로 유명하다. 형언하기 어려운 어둠과 신비를 추구하던 그였지만 아내를 맞아들인 이후 그린 그림에는 긍정적인 활력이 담기기 시작했다. 〈갑판 위에서〉는 그가 젊은 아내 카롤린 보메와 결혼하여 뤼겐섬과 발틱해 연안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드레스덴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린 그림이다.

그림 속의 남녀는 프리드리히 부부일 터인데, 마치 이제 막 가까워지기 시작한 남녀처럼 암전하다. 키스를 하지도 포옹을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손을 꼭 맞잡고 있다. 연애라는 '관례'에 따른 스킨십의 첫 단계일 뿐이다. 하지만 표정을 알 수 없는 이들의 뒷모습에서는 벅차오르는 행복과 설렘이 느껴진다. 이보다 백여 년 뒤에 생텍쥐페리가 썼던 그대로이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타이어의 찬란함 오래도록

기억하라

자르고 겹겹이 붙여진 타이어가 마치 상상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슈퍼히어로로 변신한다. 조각가 지용호의 숙련된 솜씨를 통해 타이어는 표정이 살아있는 얼굴과 디테일한 팔뚝의 근육,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어내는 시선까지 생생함을 가득 담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지용호 작가는 지난 10월 올림픽공원에서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전시회는 제 기능을 다한 폐타이어가 의미 있는 오브제로 변신해 자연과 어우러져 우리가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환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만들어주었다. 그의 작품 속에서 타이어의 찬란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

〈Jackal Man 1, 2007, 55*45*117cm, Used Tire, Synthetic Resins〉



Epilogue

참여해 주세요

〈헬로우 넥센〉에 궁금하셨던 점, 바라는 점 등을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헬로우 넥센〉구독신청은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경영관리팀 박수현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지난 호 정답

세로

1 심수창 2 색종이 3 오컬트 4 지하실

가로

1 심근경색 3 오이지 5 아파트

퀴즈 당첨자

- 박정웅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 김서현 부산시 북구 만덕동
- 서호빈 부산시 동래구 명장2동
- 김준영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 이옥경 부산시 동래구 낙만동
- 김민주 충남 홍성군 광천읍
- 강은비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 안선희 충남 서천군 서면
- 황형구 강원도 강릉시 흥제동
- 김려경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N박사 상담소 당첨자

- 김정화 전북 군산시 개정동
- 정미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복습 퀴즈

1			2	
		2		
	3			
				4
3				

세로

- 1 10월 12일 준공식이 열린 넥센타이어의 00공장. 우포늾와 낙동강이 유명한 곳이다.
- 2 새로 나온 물건. 넥센타이어는 000 설명회를 통해 엔프리즈와 원가드아이스를 새로이 선보였다.
- 3 1471년 통도사의 승려 성육이 창건한 절의 이름.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하며 대웅전 석조여래좌상이 보물 제491호이다.
- 4 부산과 울산에 인접한 공업 신도시로 넥센타이어의 본사가 위치한 곳.

가로

- 1 백낙삼, 최필순 부부가 45년째 무료 예식봉사를 하는 신신예식장이 있는 도시명.
- 2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크게 베풀다'는 뜻을 가졌다. 재료파트 서상덕 조장이 한때 이곳에서 근무했다고.
- 3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연정. 남자는 이것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며, 〈건축학개론〉, 〈응답하라 1997〉 등으로 000 신드롬이 생기기도 했다.

기본의 기준을 바꾼 All Season 타이어
[엔프리즈 AH5]

NPriz AH5



뛰어난 마일리지와 저소음, 편안한 승차감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New Product

Multi Premium Nordic Winter Tire

WINGUARD ice

눈길, 빙판길! 두려움 없이 달린다!

